

514-88

<1998년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제 2 차 정기총회 보고서

(사업기간 : 1997년 3월 28일 ~ 1997년 12월 31일)

때 : 1998년 2월 20일(금) 늦은 2시 - 5시  
곳 : 경동교회 집회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부설)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264-8649, 275-4860(연구원) 전송 275-4861 천리안 WMP





## 제2차 정기총회 일정표

오후

1:30 - 2:00 등록 : 등록위원(노길림, 김현숙, 이유일)

제1부

2:00 - 3:00 강연 : IMF제재와 군비통제  
(이장교수 - 국민대 행정학과)

제2부

3:00 - 3:30 정기총회

제3부

평화의 몸살리기 : 손덕수교수, 한진이교수

음식과 웃음 : 윤명선위원장, 재정위원회



# 목 차

I.	제2차 정기총회 일정표 .....	2
II.	목 차 .....	3
III.	정기총회순서 .....	4
IV.	인사의말씀 .....	5
V.	사무국 보고서 .....	6
VI.	1997년도 각 위원회 사업보고서 .....	12
	정책기획위원회 .....	12
	통일사업위원회 .....	15
	평화교육·조직위원회 .....	22
	대의협력위원회 .....	27
	재정위원회 .....	31
	연구위원회 .....	37
	감사보고서 .....	40
VII.	1998년도 사업계획안 .....	41
	정책기획위원회 .....	42
	평화교육위원회 .....	43
	통일사업위원회 .....	44
	대의협력위원회 .....	45
	재정·조직관리위원회 .....	46
VIII.	1998년도 월별사업계획안 .....	48
IX.	정관 개정안 .....	50
X.	1997년도 정관 .....	52
XI.	1997년도 글모음 .....	58
XII.	신문관원기사 .....	79
XIII.	노래 .....	86

### Ⅲ. 제 2 차 정기총회 순서

의장 : 이현숙 상임부대표

- |                     |              |
|---------------------|--------------|
| 1. 성수보고             | 부서기 박성자      |
| 2. 회순재택             | 의장           |
| 3. 개회선언             | 의장           |
| 4. 국민의례             | 다같이          |
| 5. 대표인사대표           | 이우정          |
| 6. 전 회의록 낭독         | 부서기 박성자      |
| 7. 사무국 보고           | 사무국장 유복남     |
| 8. 각 위원회 사업보고       |              |
| 정책기획위원회             | 위원장 김숙임      |
| 통일사업위원회             | 위원장 윤수경      |
| 평화교육조직위원회           | 위원장 한진이, 손덕수 |
| 대외협력위원회             | 위원장 최만자      |
| 연구위원회               | 위원장 박현선      |
| 재정위원회               | 위원장 윤명선      |
| 감사보고                | 감사 이문우, 윤영애  |
| 1997년도 회계결산보고       | 회계 김지선       |
| 9. 현장개정             | 대표 이우정       |
| 10. 임원보선            | 대표 이우정       |
| 11. 1998년도 사업계획안 채택 | 대표 이우정       |
| 정책기획위원회             | 대표 이우정       |
| 통일사업위원회             | 대표 이우정       |
| 평화교육위원회             | 대표 이우정       |
| 대외협력위원회             | 대표 이우정       |
| 재정·조직관리위원회          | 대표 이우정       |
| 12. 1998년도 예산안 채택   | 의장           |
| 13. 기타 안건토의         | 의장           |
| 14. 회의록 받음          | 부서기 박성자      |
| 15. 폐회 선언           | 의장           |

#### IV. 인 사 말 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창립총회를 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제2차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회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협조로 적은 재정과 인원으로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들을 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는 평화의 기본 조건은 생존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존권 중에서도 기초적인 조건인 식량문제 해결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북한 식량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이음으로 북한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 홍선옥서기장과 민주여성동맹 위원장을 지정해서 분유 26톤을 보낼 수 있었고 일본 실행위원회를 통해 위회 두 단체장들로부터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 밖의 대인지회급 지운동, 반핵, 군축운동 등은 주도적으로는 못했으나 연대해서 하였고,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에는 717인 성명서와 기념행사, 평화기행 등을 우리 단체가 주도해서 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하얏트 호텔에서 한 "평화만들기 바자회"는 각 방송사와 언론사를 통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상당한 효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돌아다친 IMF의 한파는 많은 실업자를 내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을 도래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기본에서부터 위협하는 사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 시기 등 험악한 사회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 운동을 하는 우리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정설한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하는 평화 운동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는 후퇴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치열한 경쟁은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서로 협력하여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여성들의 타고난 감성으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요, 서로 나누는 나눔의 삶, 협력, 위로, 격려 등을 통해 공존 공영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평화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8년 2월 20일 대표 이 우 정



## V. 사무국 보고

### 가. 97년도 중점사업

- 식량난에 처한 북한어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다 -

#### 1. 취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임산모들에게 최소한의 식품과 의약품을 제공하여

- (1) 동포의 생명을 살리고
- (2)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 (3) 민족의 공존과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2. 사업내용

##### (1) 모금

- 1) 연론(일간지, 주간지, 방송국 등)을 통한 홍보로 개인구과 입금
- 2) 회원들의 개인별 홍보를 통한 입금
- 3) 한국여성단체연합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전국규모의 조직동원
- 4) 거리모금

· 공동 거리모금

· 30여개 회원단체별로 각 지역에서 거리모금

##### (2) 성명서 발표

##### (3) 식량구입

- (4) 북한의 여성단체에 전달하여 어린이와 임산모에게 배포
- (5) 대 국민 홍보 활동
- (6) 관련단체와 공동 세미나

#### 3. 홍보

- (1) 소식지 발행: 북한 상황과 모금 현황 등이 담긴 소식지
- (2) 한겨레신문사에 참여안대와 참여자 명단 발표
- (3) 기타 연론을 통한 계속적 홍보 등

### 나. 1997년도 주요 사업일지

- |              |                                   |
|--------------|-----------------------------------|
| 1998. 3. 28. | 창립총회                              |
| 1998. 3. 28. | 밤나누기 사랑나누기운동 전개(북한식량보내기)          |
| 4. 23.       | 여성 717인 성명서 발표(북한 식량난에 대한 여성의 입장) |

- 5. 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과  
북한동포돕기 거리모금행사
- 5. 30. 제1차 정책 워킹숍 개최
- 6. 17~23 국제여성심포지움 개최(여성단체연합과 공동주최)
- 7. 4 밤나누기 사랑나누기 1차 모금활동경의와 모금명단 보도
- 8. 26. 북한여성단체에 분유 26톤 전송식
- 7. 20~10. 5 평화만들기 바자 준비
- 10. 6 평화만들기 바자 개최
- 11. 7. 탈북여성들과의 대화모임
- 11. 8. 백령도 평화기행
- 11. 20. 15대 대선에 즈음한 20대 여성평화과제 제시
- 12. 국제여성평화 단체(윌프)와 네트워크 형성

#### 다. 회의

이사회 - 1회, 운영위원회 - 대월 1회 총 8회, 대표단회의 - 4회, 통일사업위원회 3회, 평화교육,조직위원회 5회, 정책기획위원회 7회, 재정위원회 4회, 대외협력위원회 3회, 연구위원회 2회, 정책합의회 1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회 2회, 편집위원회 1회

#### 라. 대외연대활동

1.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의 연대
  - 창립총회시 여성단체연합의 준회원으로 등록
  - 밤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
  - 국제여성심포지움 공동주최자로 참여
  - 월1회 수도권 사무국장 연석회의에 참여
  - 이사회 참여
  -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 토론회 참여
2. 북한돕기민간단체 전국연합(전국연합)과의 연대

##### (1) 창립과정

1997년 4월 23일 등 6개 단체가 모여 북한동포돕기운동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느슨한 연락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한 이래 6월 24일 까지 9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6월 30일 홍사단 강당에서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여연을 비롯한 120여 단체의 이름으로 북한동포돕기민간단체전국회의를 발족하다. 여연이 실행위원 단체로 있는 전국회의에는 평화여성회가 파견되어 일하고 있으며 대표자회의에는 본회 이현숙 상임부대표가, 실무자회의에는 본회 유복남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 (2) 활동

### 1) 북한국경 중국지역 북한식량실태조사단 파견

일 시 : 1997년 8월26일- 30일

장 소 : 중국 연길, 단둥, 도문, 무산, 훈춘 등

참 가 : 평화여성회 한진이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 임원 및 실무자 18명.

### 2) 북한식량난 국경지역 실태조사단 보고대회.

일 시 : 1997년 9월 5일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 3) 북한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제 콘소시움 구성

UN산하 구호단체(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 캐나다곡물은행,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유엔디피 등)와 국제 비정부기구 구호단체 재미동포 등 약 40여명은 97년 12월 19일 미 아틀란타시 카터센터에 모여 북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제 콘소시움 구성을 제안

#### <제안내경>

- \* 민간단체가 단순구호방식의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는 방식이 문제의 근본해결 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
- \* 미 정부는 대북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의 긴급시대를 예방하면서 관계발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4차회담 등의 유인책으로 KADO(식량지원 컨소시움)와 핵동결을 위한 KEDO(경수로지원 컨소시움)구성정수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화당총선의 보수여론에 의해 저출결의가 쉽지 않으므로 먼저 민간 차원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진출이 본

격화할 가능성이 높음.

- \* 북한은 현재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외 비정부기구에 대해 농업개혁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근 군을 기초 단위로 해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며, 이와같은 흐름은 확대 추세임.
- \* 카터센터는 북핵의 제단에서 대북농업개혁사업 추진과 관련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추진중
- \* 이러한 사실은 이후 미국정부와 기업참여 유도를 통해 대규모 대북지원으로 발전가능하다는 판단과 아울러 남한 새정부의 참여와 협력(작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에 농림부 포함)도 기대가 가능함.

#### 4) 실행위원회 정책협의회

일 시 : 10월 7일- 8일

장 소 : 다락원 캠프장

내 용 : 경제분석과 분과활동 활성화 등 사업협의.

#### 5) 실행위원회

1998년 1월 17일 제 10차 실행위원회가 개최되었음.

### (3) 평가

첫째, 각단체 대표들의 승인아래 진행되기는 했으나 단체실무단위의 실행위원회 단일 조직만으로는 충분한 힘을 실어 사업을 실천하기 어렵고 이의 보안을 위해 대표자들의 참여를 위한 구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둘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일실무자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왔으나 아직 충분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3. 대인지외 대책회의와의 연대

1997년 오슬로에서 89개국 정부가 대인지외경제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1997년 11월 6일 '한국대인지외대책회의'(대책회의)를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교회여성연합회 등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참여연대, 전국연합, 민교협, 통일맞이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대책회의는 1997년 12월 3일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에 2명의 대표를 파송, 한국민간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돌아왔으며 이

회의에서 120여개 국가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회의에는 본회 김윤옥부대표가 공동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유복남 사무국장이 실무회의에참석하고 있다. 대회의는 1998년 2월 2일부터 5일까지 1997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 초청, 대인지뢰금지 한국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국내의 연대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 4. 기타 평화관련 연대모임

7. 1 국제평화회의(International Peace Council) 실무자회의 간담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코리아 하우스)
- 8.20 북지사회 세미나,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주최(프레스센터)
- 9.18 한일 평화교육세미나, 한신대학교 주최(아우내 재단)
5. 동북아 평화 국제 세미나, 아시아교회협의회주최
- 11.20~27 여성폭력관련 국제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주최,

#### 마. 홍보활동 : 보고서 1997년도 금모음 참조

1. 본회 창립 관련 보도
2. 북한돕기 관련보도,
3. 평화만들기 바자 관련 보도
4. 평화여성회 소개 보도,

#### 바. 행정

1. 기독교사회발전협회 - 평화교육에 관한 프로젝트 신청 - 부결
2. 나우만재단 - 프로젝트 신청 가능성을 위해 방문했으나 실패
3. 서울시여성발전기금 - 교육위원회가 '청소년 문화축제' 프로젝트 신청 - 750만원 지급통보 받음
4. 한국여성평화연구원(전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을
5. 평화여성회의 부설연구원으로 통합
6. 사단법인체 등록을 위한 준비
7. 여성평화의 집 이사회에 정회원으로 등록
8. 단체소개 브로셔(한, 영) 제작, 북한돕기 브로셔, 직인, 봉투, 영수증, 명함 제작
9. 주소록 작성

사. 본회를 방문한 단체와 인물

4. 15. 일본시민핵정보센터(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관계자 2명
  4. 16. 한신대 김경재 박사 - 밤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 격려와 참여 방문
  5. 7. 미국천우봉사회(AFSC)의 에드워드 리드박사
  5. 29. 여한회사회 회장과 고은광순 부회장-북한돕기성금 100만원 본회전달
  9. 26. 미국감리교 예선교국 Louis Fausset, Connie Dakamori
  - 10.21. 유한전문대학교지편집부원 3명 - 밤나누기 사랑나누기 성금 전달
  10. 9 미얀마의 도시산업선교회(URM) 실무자 3명
  1. 27. 중국연길겨주 김주석 선교사, 신낙균 의원  
독일 서남지구 교회 여성지도자 6명
- 기타 : 일간지, 월간지, 방송국 기자들

## VI. 1997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보고

### 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김숙임

#### 1. 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숙임

-위원 : 김엘리, 박후임, 정경란, 조영희

-위원회 소집 : 7회

#### 2. 사업목표

-본회 사업의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을 검토한다.

\*1997년도 중점사업인 대북 식량지원운동의 방향설정

\*남북한 통일정책 분석 및 연구: 남북한 정부당국의 통일정책 분석 및 평가, NGO 등의 통일운동과 정책분석 및 평가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정보교류

\*통일, 국방, 외교 등 소위 비여성 영역에서의 여성참여와 여성역할 증대 방안모색

\*여성평화운동의 중장기 전략 마련

\*국내외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형성

#### 3. 사업내용

##### (1) 제1차 정책 원상

-때 : 1997년 5월 30일(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곳 : 숭실대 사회봉사관

-참석 : 김숙임, 박후임, 정경란, 김엘리, 정현백, 김윤옥, 이현숙,

-내용 : \*발제 1.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정현백 부대표

\*발제 2. 평화여성회의 활동방향을 위한 몇가지 생각들/김엘리 사무국장

\*국제평화심포지움 발제문 검토-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 방안/김윤옥 부대표

-토론의제 :

\*여성이 평화운동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성이 평화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평화여성회의 현실적 회원구성에 비추어 전문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장기적 평화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후반기 사업방향과 내용은?

(2) '대북지원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부 토론회

-일시 : 1997년 6월 11일(수) 오후 4시~6시

-장소 : 사무실, 발제 : 정경관 위원

-토의 내용:

\* 북한의 입산모와 어린이 지원방안 검토-북의 락야소,조산원 또는 여성동맹이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북측실행위원회에게 지경기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6월 이후 '밤나누기 사랑나누기'운동방향 검토- 지원종목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운동을 범여성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정부가 대북지원민간단체활동을 탄압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문제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인변 등 법률단체의 움직임을 보면 시 대응해간다.

\* 국제여성평화실포지움의 결의문 채택시 ㄱ)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ㄴ)인도주위에 입각한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촉구, ㄷ)참가국의 반 평화적 여성문제, ㄹ)한반도에서의 대미관계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입장을 제안한다.

(3) '4차회담에 대한 남북한과 미국의 시각'에 관한 내부토론회

-일시: 1997. 8. 1, 장소: 사무실, 발제:정경관 위원

-토의 내용:

\*제3차 기획위원회(7월)에서 결정된 15대 대선에 즈음한 여성평화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다

\*이를 위한 내용구성과 역할분담: 평화군사(정경관), 통일(김숙임), 여성(김엘리)

\*일정: 10월 말까지 내용완료 후 운영위 토론회와 외부 전문가회의 토론회를 거쳐 확정

(4) 15대 대통령후보에게 20대 여성평화정책 확정과 제안

- 일시: 1997년 11월



### 1) 여성평화정책 20대 과제의 선정배경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공약을 만드는 여성회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여성공약과 통일,군사,안보부분의 공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유권자가 올바른 여성평화정책의 기준을 갖고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여성평화정책 20대 과제의 기본방향

여성평화정책의 기본방향은 평화로운 민족공동체건설과 평화로운 세계질서의 확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안보,군사분야의 정책내용이, 그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모두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실현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한다. 통일시대 지향적인 군사체제의 정비, 시민의 인연과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안보, 평화가치관의 확산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공약을 만드는 여성회는 15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평화철학과 이에 입각한 통일복지사표를 지향하는 정치인을 대동령으로 뽑음으로써 평화체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3) 차기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여성평화정책 20대과제

- ①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평화중립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②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재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논의에의 민간참여 보장으로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이산가족의 소식교환 및 상봉 등 인도적 교류를 위한 재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⑦ 종속적 한미군사관계를 호혜평등한 군사관계로 전환하여 국방의 자주화를 실현한다.
- ⑧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 ⑨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상호군축을 위한 군축협상을 시작한다.
- ⑩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고 군정보기관의 민간사찰을 폐지한다.
- ⑪ 국방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민간인의 국방관련 정보 접근을 쉽게하여 민군 일체감 조성한다.
- ⑫ 정연유지자금 제공 등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권부억중앙사업을 개선한다.
- ⑬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 ⑭ 북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
- ⑮ 방위비 삭감과 여성복지확대
- ⑯ 통일관련 분야의 정책수립과 결정집행과정에 여성 참여 30%이상 확보
- ⑰ 평화교육을 위한 여성지도력 양성과 지원

- ③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보장과 지원
- ④ 안미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방지
- ⑤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외교정책 실시

#### 4) 성과

여연의 21세기 여성정책 과 여성신문사가 주최한 대통령 후보와의 여성토론회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통일, 평화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관점과 입장을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천명하는 계기를 얻었다.

### 나. 통일사업위원회

위원장 : 윤수경

#### 1.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윤수경(국방대학원 졸업) - 5월부터 김희은위원장의 후임으로 활동

위원회 : 고은광순, 김희은, 인재근, 장도송, 이순리, 위원회 소집 8회

#### 2. 사업목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행동을 전개한다.

- \* 대북식량지원운동
- \* 통일준비활동

#### 3. 사업내용

(I) 식량난에 처한 북한동포들과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전개

##### 1) 모금운동 개요

- \* 취지와 목표: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입산모들에게 최소한의 식품과 의약품을 제공하여
  - 동포의 생명을 살리고
  -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 민족의 공존과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 모금운동 공식 명칭확정 :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 \* 취지와 모금안내를 위한 전단지제작: [북한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1만부 발행
- \* 모금방법:

-회원들의 개인별 홍보를 통한 임금 :공문과 전단발송, 전화

-거리모금

-'밥나누기 사랑나누기'운동을 한국여성단체연합과의 연대활동으로 확대하여 전국 규모의 조직동원, 30여개 회원단체별로 모금

-인문(일간지, 주간지, 방송국 등)홍보를 통한 모금

한겨레신문등 주요 일간지, 월간 통일한국, 사람과 사회, 기독교신문, 민족회의 통신, 아주대 학보사, MBC TV, MBC, 라디오, CBS, KBS사회교육방송, 등 출연

-여성단체, 여대생체를 참여유도:공문과 전단발송, 강연, 전화

-소식지 발행: 북한 상황과 모금 현황 등이 담긴 소식지, 평화서신 발행(1호-5호)

-한겨레신문에 매일 '밥나누기 사랑 나누기' 전화번호(264-8649)를 기사란에 게재하여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제 1, 2차로 나누어 모금참가자 명단을 발표

-북한돕기운동을 위한 상근실무자를 임시로 채용

2)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긴급 위원장 회의

일시 : 1997년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사무실

참석 : 이우정, 김숙임, 김희은, 윤명선, 이현숙, 김윤옥, 김열리

안건 : 북한여성성남기 계획안 검토

모금활성화 방안

대정부 성명서 발표와 적절한 사회행동 모색

3) 회원 각계대표 긴급대회의

일시 : 1997년 4월 18일 오후 3시

장소 : 사무실

참석 : 한국여, 하정남, 장도송, 인제근, 전순란, 고은경순,

이정자, 장감자, 구훈모, 한정자, 김희원, 정현택, 이상덕,

성명옥, 이현숙, 김열리

결의사항: ㄱ) 여성 500인 명의로 정부의 즉각적인 대북식량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ㄴ)북한돕기 여성 감사민관회 개최

#### 4) 거리모금활동 :

- 평화여성회 자체 거리모금  
일시 : 4월 19일- 5월 24일 매주토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 대학로 홍사단, 명동  
내용 : 북한 식량난 대중홍보 및 모금활동
- 여연과의 공동 거리모금: 4월 19일(토), 5월 3일 (토)
- 캠페인 태그 판매: 1개 2,000원 (맘나누기 사랑나누기를 표현한 냇지 종류)

#### 5) 여성계 717인 성명서 발표(4월 23일)

##### ① 배경

- 현재 여성계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3월 28일부터 3개월 동안 북한 식량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4월 한달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집중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여 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최근 대북식량지원 발표와 남북적십자간의 대표접촉을 앞두고 여성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식량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 ② 주요 내용 및 취지

- 정부의 7-8월 대북식량지원은 현재 끊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볼 때 늦은감이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지금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난을 정치적 의제로삼을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
- 북한 당국은 기아의 실상을 공개하여 끊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 남북한 정부는 관공점을 통한 식량교류 정책을 수립하여 북한 동포들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경비 등을 소모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참가 : 여성계 인사 717인 참여

##### ④ 보도 : 한겨레신문에 여성계 717인 성명서 발표

#### 6) 대 정부 입장 결정

1997년 5월 3일 운영위원회는 대북지원활동으로 밀리고 있는 거리모금을 기부금품 모집 법규에 따라 비합법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더라도 거리모금을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7) 대북식량지원 운동 관련 대외 연대회의와 활동

① 세계식량계획(WFP)의 버티니 사무국장과 국내 대북지원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주최 : 한국 UNDP

-일시 : 1997년 4월 15일

-장소 : 신라호텔

-참석 : 이우정, 이형숙, 김윤옥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 10여명

-내용 : 북한방문 보고와 보다 적극적인 식량지원 호소  
북한방문활동 슬라이드 상영 - 이미 해가 앙상하게 드러난 북한 어린이의 사진 등 처참하게 파괴된 북한의 큰물피해상황 사진

② 북한식량난과 민간단체 활동 대응 토론회 공동주최

-일시 : 1997. 5. 20.

-주제 : 북한 식량난과 민간단체 대응활동 방향

-주최 : 거래사랑 복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본부, 평화여성회 등

③ 복녘동포돕기 시낭송 및 특별공연 공동주최

-일시 : 1997. 5. 24. -장소 : 승의여전

-주최 : 민족문화학자회의, 평화여성회 등

④ 관련회의 참석

5.9 북한식량난과 동아시아 경제변화 세미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주최(프레스센터)

5.12 남북적십자회담결과 설명회, 대한적십자 주최(적십자사)

6.24~6.26 북한식량난에 관한 국제회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갈레스호텔)

7. 9 대북지원활동 정보수집을 위해 적십자사 방문

- 7.21 에드워드 리드 박사(미국천우봉사회)의 북한방문보고 모임  
NCC 통일위원회 참여, 지정기탁협력 요청
- 8.12 97평화통일 민족대토론회
- 8.15 97평화통일 민족대회
- 8.20 통일문제 국제회의, 한국정치학회주최(플라자호텔)
- 8.26 최근 북한의 상황과 100만인 시명운동 간담회
- 9. 1 통일교육공청회, 통일원 주최
- 10.11 북한문제국제세미나, 연대정치학회 주최
- 11.20~21 북한돕기민간운동 세미나, 민족통일연구원 주최(도고)
- 12. 5~6 북남돕기운동의 평가와 전망, 한겨레신문사 주최(연대)

⑤ 북한돕기민간단체 전국연합(전국연합)결성에 참여

1997년 4월 23일 등 6개 단체가 모여 북한동포돕기운동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느슨한 연락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한 이래 6월 24일까지 9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6월 30일 홍시단 강당에서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여연회를 비롯한 120여 단체의 이름으로 북한동포돕기민간단체전국회의를 발족하다. 전국연합은 북한국경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한 동시에 98년도에는 북한농업구조개선 지원활동으로 전환, 국제콘소시움을 구성 대응할 계획.

8) 여연과 '맘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 대표자 회의

- 일시: 1997. 7. 10. - 장소:사무실
- 참석: 이우정,이현숙, 지은희
- 안건: 1차 모금액 보고와 대북지원 방안과 품목 결정
- 모금총액: 86,080,077원 (평화여성회 - 56,519,417원,  
여연 - 29,560,660원)
- 결의: 곡물 1천톤(약 1억5천만원어치)일 경우에만 지정기탁이 가능함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여성위원회와 함께 1억 5천만원을 만들어 북한의 여성단체(민주여성동맹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북측실행위원회(북측실

행위))에 지정기탁하기로 함.  
이를 위해 NCC와 협의하기로 함.

9) 달지분유 26본을 북한여성단체에 지정기탁 전달식

- 때 : 1997. 8. 27. - 곳 : 인천 연안부두
- 참석 : 이우정, 이현숙, 유복남, 지은희, 남일순 등
- 내용 : 평화여성회, 여연, NCC여성위원회 3단체가 구입한 달지분유 26본을 NCC가 평화의 쌀을 동전 나고야 호에 합쳐 싶어 보냄. 이에 앞서 진행된 선적 및 전달식에서 이우정 대표는 적십자사로부터 인수장을 받음.  
이 때는 북한의 남포항에 무사히 도착, '아시아...토론회' 북측 실행위로부터 '잘 받았으며 감사하다'는 편지가 '아시아...토론회' 일본실행위를 통해 구부로 전달되어 왔다.

10) 북한국경 중국지역 북한서랍설대조사단에 참여

- 일시 : 1997년 8월 26일~30일
- 장소 : 중국 연길, 단둥, 도문, 무산, 훈춘 등
- 참가 : 평화여성회 한진이 교육위원장이 본회를 대표하여 전국 연합 소속단체의 임원 및 실무자 18명과 함께 참가하고 돌아오다.
- 참가보고 : 1997년 9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에서 참가 보고대회를 가진 동시에 보고서를 발행하다. (사무실에 비치한 보고서 참조)

11) 97년도 평화여성회 '밤나누기 사랑나누기' 모금 결산

- 모금기간 : 1997년 3월 28일 ~ 1998년 12월 31일
- 모금총액 : 68,165,013원
- 지출총액 : 56,919,417원  
분유 대금조로 NCC에 기탁 56,519,417원 (1997년 7월 23일) 정제인 대그 600개(개당 500원) 구입비 300,000원(97.7.1) 연변 한인교회(김주석목사) 100,000원(10.27)
- 잔 고 : 11,245,596원 (1997년 12월 31일 현재)

- 모집자 명단: 1차 명단- 한겨레신문 1997년 5월, 19일(월) 참조
- 2차 명단- 한겨레신문 1997년 7월, 17일
- 3차 명단-                   \*                   계제 예정

(2) 탈북 여성들과의 대화 모임(1)

- 때 : 1997년 11월 7일(금) 오후 1:30~8시
- 곳 : 크리스찬아카데미 동승동 사무실
- 참석 : 탈북여성 5명, 남한여성 17명, '한겨레 21' 기자 1명, 여영사 2명.
- 목표 :
  - 1) 탈북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남. 북한여성들의 현실생활, 고쳐와 희망을 이해하고 파악한다.
  - 2) 북한여성들에 대한 실상 파악을 통해 북한 개방시 바람직한 대응자세를 모색한다.
  - 3) 탈북여성들의 남한 체제적응의 현실을 파악하고 상호 지원과 협력방안을 함께 찾는다.
- 내용 : 주제 - 남·북한 여성의 가정생활 이야기
  - ① 의식주 문제(식사준비, 의류형태, 세탁, 주거형태 - 농어촌과 도시)
  - ② 가족관계(시부모관계, 노인부양,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정관계)
  - ③ 육아(출산, 수유, 육아책임)
  - ④ 가정의례(혼인, 호주, 본관, 장례, 제사, 명절)
  - ⑤ 가정경제(수입, 지출, 관리, 소유)
- 발제 : 북측 - 김찬옥  
남측 - 양혜경(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장)
- 참가자 명단 : 북에서 온 분들, 김찬옥, 이옥금, 이주선, 조승희, 최현실, 등 5명  
남한측 20명 등 총 25명
- 진행방식 : 심도있는 대화를 위해 당초엔 10명-15명 이내의 소규모 대화모임으로, 언론에는 비공개(안기부의 요청)로 진행하기로 계획. 그러나 참가자의 요청에 따라 참가자 수가 확대됨.
- 대화결과 : 앞으로 6-7회의 대화모임을 가진후 결과보고대회를 거



책 단행본으로 출판예정.

1차모임 결과는 계간지 [평화를 만드는여성들] '대담걸  
하는 남한여성 두렵다'와 소식판 참조

- 평가 : - 북한에서 온 여성들과의 대화모임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관심을 야기.
- 참가자수가 확대됨
- 남측한 참가자 모두 만족감을 보이며 지속적인 대화모임의 필요성에 공감.
- 효과적인 대화진행을 위해 귀납적 방식(삶의 구체적 이야기 방식)으로 구성했으나 참가자들의 과도한 호기심으로 인해 질문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주어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못함.
- 진행방식 전반에 대한 계검토와 재구조화가 필요.
- 실무자의 접수준비가 불비하였고 참가자들이 시작시간보다 늦게 도착.
-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에 차질을 빚음.

#### 다. 평화교육·조직위원회

위원장 : 함건이, 손덕수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함건이, 손덕수 (편의상 교육위와 조직위를 통합)
- 위원회 : 김상일, 김현숙, 최영숙
- 위원회 소집 : 5회

##### 2. 사업목표

- 평화와 관용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의 평화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대중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평화 지기단 또는 감시단과 같은 여성 평화지도력을 훈련한다.

##### 3. 사업 내용

- (1) 바자를 통한 평화만들기 캠페인 행사

- 때: 1997년 10월 6일(월) 오전 10시 - 오후 9시

- 곳: 하얏트 호텔

- 참석인원: 500여명

- 행사취지:

평화교육, 평화문화 형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1)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이 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실상 갈등과 공격성, 분노와 좌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의 평화능력을 키워주는 평화교육은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 2)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존경심이나 때려의 마음을 갖게하는 평화적 심성준비도 미흡하다.
- 3) 임시제일주의나 분단상황이 초래하는 적개심이나 증오심 또는 대립적, 경쟁적 태도등도 여전히 이 사회의 심리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어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 4) 소리와 시각을 조장하기 위한 음란물과 폭력물이 가정, 학교, 대중매체, 정보매체를 잠식하며 신세대를 위협하고 음란성과 폭력성을 띤 대중문화가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불안증을 만연시키고 있다.

- 행사목적:

평화만들기 캠페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캠페인은 바자라는 형식을 빌려 평화만들기 캠페인에 대중 특히 주부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바자 장소에서 평화만들기 행사와 축제를 벌여 주부와 대중문화 종사자 그리고 청소년층이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앞으로 평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도 세력으로 참여하게끔 한다.

- 1) 사회전반이 [평화만들기]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일상속에서 [평화만들기]를 시작해 보는 계기를 열고자 한다.
- 2) 특히 유아의 심성 형성에 영향력이 큰 어머니들이 평화교육의 과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가정에서 평화만들기를 시작해보는 계기를 열고자 한다.
- 3)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는 신세대들과 문화예술활동 주자들에게 그들

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 그들의 문화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21세기의 평화문화, 생태문화, 대안문화를 창조해가는 변혁적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93년 불란서의 국제대전의 유행이나 최근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난, 폭력, 박탈, 방황 등이 새로운 주제로 부각되는 것 등은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 4) 가정, 학교, 그리고 언론에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다루도록 자극하고자 한다. 어릴 때부터 협력, 배려, 관용, 화해의 평화적 심성을 심어 주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을 심어주며 동시에 대안적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길러주는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자극하고자 한다.

- 행사내용 :

\*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평화기원문 받아 전시.

김수환, 장원동, 이희호, 장상, 이경숙, 서영훈, 박진영, 김종광, 신낙균, 유인촌, 등 각계 각층의 수많은 분들이 참여.

예1) 여성회 힘으로

주와리 나라, 주와리 家호를 만들시다. 1997. 10. 6 주 報 報

예2) 평화 메시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편지와 감사말 드립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강요엔 소망이요 거룩한 길에  
마는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으시리라 믿고 믿니다.

평화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웃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사랑할 줄 할 때,  
다들속 영우고 직행할 줄 할 때 평화는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평화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마음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간 사랑, 간 사람이 이 길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사회와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간에  
계주간, 지역간 자발에서 오는  
모든 불화와 분열을 해소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평화의 집, 곧 사랑은

우리 모두의 걸친진 남북분단의 벽을 칠고

평화 통일외 길이 되며

세계 평화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1997. 9. 19. 전주교 석촌대학교구장

주최명 김 수 진

- \* 평화만들기행사 : 행사장을 설치하여 바자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
    - ① 평화의 숲 만들기 - 손도장 찍기와 평화기원문 쓰기 : 담당, 김명희, 윤옥경
    - ② 북한지도에 나무심기 - 커피하우스와 옥수수죽 코너를 이용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북한지도에 묘목스티커 붙이기 : 담당, 노길림, 이순아, 오하영
  - \* 평화의 노래 제작, 연주
    - 조병옥 곡, 서승식 시 “우리는 평화의 새”
    - 윤우호 곡, 작사 “평화 이룰수 있어” : 개막식과 행사기간 연주
  - \* 평화이벤트
    - 서울놀이패 하늘땅 소리굿 공연 - 오후 3시-3시 30분
    - 평화의 흙빛기 코너 - 박종훈 교수와 함께 하는 도자기 빚기
  - \* 평화관지: 오후 6:00-8:00
    - 길놀이(평화여성회 놀이패), 노래사랑회 공연(유열, 노시연, 풀)
    - 다함께 노래와 춤
  - \* 평화의 얼굴 만들기 : 린나이 가스 오븐 렌지(100만원 상당)를 상품으로 내걸고 응모를 홍보했으나 응모자가 없었음.
  - \* 회원 모집코너 운영(조직위원회) : 담당, 지순희, 윤수경
- 의의: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던 무렵이어서 일간지와 라디오 방송 홍보가 비교적 잘됨으로 평화만들기에 대한 사회 일부의 관심을 야기하는 계기를 열음. 반면 평화여성회를 홍보하는 데는 크게 기여. 그러나 당일 평화만들기 행사는 무더위 속에서 땀흘리며 준비한 노력에 비해 저조한 편. 준비기간과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음.

여름철을 준비기간으로 한 정도 불리했던 요소

## (2) 평화기행

- 때: 1997년 8일(토)-9일(일)
- 곳: 백령도 - 출발지: 인천연안부두
- 참석: 한진이, 손덕수, 강혜경, 김숙임, 김현숙, 조영희, 김훈식, 이현숙, 장도송, 이인원, 이덕원, 스위스남성, 김혜경, 유복남, 총 14명
- 교통: 여객선(카피리호)으로 4시간, 현지여선 봉고차 1대 이용
- 목적: •분단피해지역 또는 분쟁지역 순례를 통해 분단피해의 고통을 수집, 홍보
  - 평화기행후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여성평화지기단을 형성
  - 백령도 선정이유 : 북한의 장산곶을 마주 보고 있는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어 공군 11개 대대와 해병 1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 주둔지. 인구 1만명 가운데 군인이 3,500여명. 백령도 주민의 1/3은 장산곶이 고향인 실항민.
- 의의: •분단으로 인한 피해상황 확인.
  - 전체의 어업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어업활동 제한 - 섬이지만 농업이 주업.
  - 어부남치사건의 발생과 마을 전체의 잦은 이상과 대피.
  - 이로 인한 주민의 불안, 여성예비군화.
  - 실항민의 아픔과 통일열망. 군 시설로 인한 자연훼손.
  - 평화의 조건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회원간의 우정과 연대를 나눔.
  - 백령도의 아름다운 자연 감상

## (3) 남북통합교실 교육참가

- 때 : 1997년 6월 17일-7월 12일
- 곳 : 중앙대학교 체제적응연구센터
- 참석 : 한진이교육위원장, 윤명선체제위원장, 이현숙 상임부대표

- 목적 :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세계적응연구센터의 남북통합교실 교육참가
- 교육과정 : 남북의 이질화 및 체제 비교, 남북의 사회 및 법률제도, 남북의 정치제도, 남북의 경제생활, 남북의 가정생활, 남북의 문화생활, 남북의 교육생활, 남북의 주민의식의 차이
- 강사진 : 남한출신 강의자와 북한출신의 강의자로 구성
- 의의 : 남북자들과의 생생한 만남과 대화의 기회  
북한주민들의 삶과 생각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  
북한체제에 대한 생생한 경험의 기회  
평화지기단 교육의 방향설정에 기여

## 라.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최만자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최만자
- 위원회: 국내 - 김대권, 노길림, 김영, 신경희, 김혜진,  
김효경, 고은애, 장남순, 윤경희, 권혜순  
국외 - 신윤옥(캐나다), 강정숙(독일), 전순란(이태리),
- 위원회 소집 : 3회

### 2. 사업목표

- 국내외 여성평화조직과의 교류와 연대망을 형성한다.
- 평화, 통일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 본회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한다.

### 3. 사업내용

#### (1) 5.24 세계군축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날 기념행사

- 때: 1997년 5월 24일
- 곳: 명동성당 앞

- 참석: 고은광순 등 회원 30여명이 평화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모임
- 주제: '여성의 손으로 평화를'
- 내용:

- \* 평화로운 세상을 촉구 하는 평화선언문 발표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에 즈음하여 >

- 1) 정부는 굶고 있는 북한동포에 대한 식량지원을 인도주의 입장에서 즉각 실시해야 한다.
- 2) 남북한 당국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줄여서 사회복지비에 써야 한다.
- 3) 평화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한다.
- 4)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인물을 정치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 5)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결정과정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여성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 \* 북한여성에게 식량보내기 거리모금 - 모금액 504,830원

- 전화연락 봉사: 심혜련, 안수경
- 행사의 배경: 1981년 NGO 유럽 11개국 49명의 여성들이 모여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정하고 1983년 5월 24일, 약 1백만명의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로 평화를 촉구하는 행사를 벌였다.

이 때는 유럽에서 미국의 핵무기 제거운동이 활발한 때였다. 80년대 후반 이후 미 모임이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활발한 운동으로 거듭난 것은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현재 이 날은 세계 각국의 평화여성단체들이 각 나라의 평화 잇슈에 따라 행사를 벌이는 평화의 날로 지켜지고 있다. 행사 주관단체는 현재 네덜란드에 있는 IFOR Women Peacemakers Program 이다.

- 본 행사의 의의 :
  - 사회전반에 여성들의 평화의지를 강력히 표현하고 전달
  - 평화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 평화운동을 하는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

(2) 국제여성심포지움 공동개최

- 때: 1997년 6월 17일-20일

- 곳: 이화여대 박물관
- 주제: 21세기 평화와 여성운동: 여성, 평화, 화해
- 공동주최: 여성단체연합과 공동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10주년기념행사)
- 참석: 연인원 200명
- 일정: 6월 17일 : 환영회  
6월 18일 : 분단현장체험(철원)  
6월 19일~ 20일 : 심포지움 및 결의문 채택
- 준비위원장 : 이효재, 이우정
- 본회준비위원 : 이우정, 최만자, 김윤옥, 이현숙, 정현택
- 준비위원회 4회, 평가회 2회
- 평화여성회의 역할분담 : 이우정대표가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김윤옥 부대표가 발제자로, 이현숙, 정현택 부대표가 심포지움 사회자로 참여하고 본회가 외국 참가자 안내 담당
- 심포지움 발제: 김윤옥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들'  
(총회보고서 '금모음' 참조)
- 참가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동티모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미국 등 5개국
- 심포지움 내용
  - 1)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의 고통과 극복을 위한 활동 보고
  - 2) 한국의 평화와 화해 및 국제여성평화연대를 위한 전략
    - ① 한반도의 평화, 화해, 통일의 장애요인과 희망적 요인
    - ②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
    - ③ 해외참가국들의 논관
    - ④ 국제여성평화네트웍을 어떻게 구축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 3) 결의문 채택: 국가간 분쟁의 종식, 분쟁국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 정신대 문제의 조속한 해결, 북한식량난 지원 등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채택.
  - 4) 심포지움의 의의: 국내 최초의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역사를 열고자하는 여성들의 열망 표명



### (3) 세계여성평화단체 윌프(WILPF)와의 연대망 형성

#### 1) 윌프 관계자들과의 만남

- 때: 1997년 6월 19일- 20일
- 내용: 6월에 열린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에 미국 윌프 지회장, 베티릭스, 독일 윌프의 안스바하 차차나 변호사가 참석. 본회 대표단은 심포지움 기간동안 미국의 베티릭스, 독일의 안스바하와 대화를 가지고 평화교육 등 연대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눔.
  - \* 윌프(WILPF)는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의 약자로 '평화와 자유를 위한 세계여성연맹'이다. 1915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창립된 이 단체는 현재 4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 \* 윌프의 목표: 전쟁, 폭력, 개발 및 모든 형태의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성, 인종, 계급이념의 구별없는 사회.경제적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치 단결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

#### 2) 제네바 세계윌프본부 방문

- 때: 1997년 11월 25일(목)
- 곳: 제네바에 있는 세계 윌프 본부 사무실
- 방문자 : 이현숙 상임부대표-세계교회협의회 주최, 세계여성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갔다가 윌프 방문하다.
- 내용: 이현숙부대표는 윌프의 바바라 로흐바일러(Barbara Lochbühler) 총무를 면담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하다
  - ① 독일에서의 남북한 여성과 독일여성과의 모임에 관한 건  
1988년 10월 쯤에 독일에서의 3차간 모임(Women - conflict - reunification)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앞으로 중요 사안으로 다룰 것을 약속.
  - ② 3월에 열리는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CSW)) 제 42차 회의 (1998. 2. 1-2. 13. 뉴욕의 유엔본부)에 옵저버로 참석요청. 단 자문단지위(consultativw status)신청을 마친 단체의 경우에 한함.

여연이 자문단 지위를 받은 상태이므로 여연 통해 참석가능.

모든 경비는 자담. 1998년 1월 30일 까지 신청 마감

<주제> 1. Women and armed conflict

2. Human rights of women

3. The girl-child

4. Violence against women

③ 7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WILPF international congress에 참석가능.

자세한 것은 추후 알려줄 것임.

④ 인권훈련 프로그램에 참석가능

\* 1998년 3월 4일~4월 29일

\* 최대 참가자수 - 단체나 지역에서 활동적인 여성 6명(각 대륙 출신)

⑤ Internships for young women in disarmament/development and human rights

\* 1월 15일~12월 15일, 제네바

\* 모든 경비는 WILPF가 부담(비행기, 생활비)

\* 21세~30세 사이의 영어 유창한 젊은 여성

\* 신청마감 - 매해 5월 15일, 중간발표 - 6월 중순

최종선발 - 8월 15일

⑥ WILPF의 지부가 되는 조건

만드시 WILPF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함

⑦ WILPF가 발행한 도서와 비디오 구입-구입금액, US \$117

(4) 영문뉴스레터 준비

- 때: 1997년도 12월 29일 - 곳: 사무실

- 내용: 영문 뉴스레터에 실을 1997년도 주요사업을 정리.

영어번역을 윤정희 위원등 영어번역 가능한 위원들에게 위촉.

## 마. 지정위원회

### 1. 사업목표

- 본회의 예산,결산을 관장한다.

- 회원들의 회비를 책정하는 동시에, 용이하고 자발적인 회비 납부의 방안을 연구,제시한다.
- 외부 후원자, 또는 후원단체를 발굴하여 후원망과 재정원을 확대해 나간다.
- 재정마련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발, 실행한다.

##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윤명선
- 위원회:서미숙, 김지선, 박형욱, 김지희, 배성자, 송영자, 정방원, 경춘자, 최경원, 지은주, 김영옥, 윤경진
- 위원회 소집 : 4회

## 3. 사업내용

### (1) 평화만들기 바자 개최

- 때: 1997년 10월 6일 (월) 오전 10시-오후 8시
- 곳: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장소협찬)
- 주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체문화원
- 후원: 그랜드 하얏트 서울, 이밖회, 노래사랑회(대학가요제 출신들의 모임), 여성신문사, 안지희&컴패니 아이디 프로덕션, 기독교방송
- 행사목적 : 평화만들기 활동을 위한 재정마련
- 참가자: 연인원 800여명

#### 1) 바자 준비위원

- 공동위원장 : 윤명선(재정위원장), 한진이(교육위원장)  
김영운(공동체 문화위원장), 김봉영(하얏트 홍보부장)
- 위원 : 김상영, 김영옥, 김숙자, 김경미, 김지선, 김지희, 김현숙(A), 김현숙(B), 문화영, 박형욱, 박혜관, 배성자, 오성숙, 윤세나, 윤수경, 이유림, 서미숙, 송영자, 신필균, 정방원, 정춘자, 지은주, 최경원, 최규현, 최영숙, 한국영, 한정자

#### 2) 바자회 구성

- 기증품코너  
평화만들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주신 소장품 혹은 유품과 기원은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목사, 장 상춘장, 김광림총장, 신

낙군의원, 서영훈대표, 이미경의원 등 100여명 250여점

•기업체 물품코너

참여업체-안지희 & Company, 가우디, 여럿이함께, 우리밀, 시의  
코코어, 애경산업, 은평천사원, 황소의 눈 등 40여 업체 200여  
물품

•스포츠, 연예인 소품코너

평화만들기에 뜻을 같이 하는 스포츠, 연예인들의 소품  
박찬호, 이성미, 유열, 박진영, 쥘, 이상우 등 다수

•미술작품 판매코너

박종훈 도자기, 지은주 서양화, 북한미술품 등

•북한음식 판매코너

북한 음식전문점 봉화관의 만두, 수육, 가자미 식혜 등

•일반친 판매코너

원불교 봉공회 각종젓갈, 젓얼, 새콤달콤 오이 등

3) 참여업체

합천교회 여신도회, 새발교회 여신도회

제노아, 노라노, 가우디, 본팰레·노비파,

윤성주(남성숙옷), 울티모, 여럿이 함께, 자연의 벗,

경훈산업, 예림학교, 은평천사원, 비영상사,

라조아, 피피콘 이불, 애경산업, 동산C&G, 최대명(로얄제리), 씨피코,

익다거, 우리밀, 박종훈 생활자기, 화가 지은주,

봉화관, 원불교봉공회, 삼양식품, 지리산영농조합, 로망제농,

안지희&컴퍼니, 세일유품, 봉미식품, 황소의 눈, 정산식품

총 34개업체

4) 광고

삼양, 한양대, 한남부자신학, 린나이, 안지희, 본프린팅

5) 자원봉사자들

기업체코너담당: 이화희

평화이벤트담당: 평화여성회

음식코너: 교회여성(합천, 새발교회)

## 6) 기증자 및 기증품 내역

기증자	품목	수량	기증자	품목	수량
김숙자(여성교회목사)	바둑찾삼	1	한진희	손지갑	1
김수환(추기경)	복각인형	2		가족장갑	1
	꽃꽂이	1		술	2
	그림(중)	1		그림	1
	그림(대)	1		홍세프	1
	나무장식점시	1	박수길	장식점시	1
이인재(대통령후보)	그림	1	장미영·여병섭	장식점시	1
손봉숙	다기세트	1		의회담자	1
고은광순	도장세트	1		가람	1
연세대농구팀	선수복세트	7	이용경	T-셔츠	10
	농구공	5	유인촌	커피잔 세트	1
박진영	액자	1	나영수,김여경	vision 세트	1
	옷			술리퍼	1
한승원	분통	4		넥타이	10
강영옥	그림	1	윤정현시장(지명)	워커	5
	관서액자	1		술리퍼	10
최희암	넥타이	1	김성용(주요)	루션카바,담석카바	10
	벨트	1		주방용장갑,화물세프	10
	운동복바지	1	지은주	그림	1
조규혁(장모)	다기세트	1	신인영(이대교수)	그림	1
신선	액자	2	한정자(중앙 부인	연습차	2
이종찬(국인회의부총재)	보리함	1	홍이사)	원피스	1
	장식물	8		올리그릇	1
박정수(국회의원)	맞사지기	1		소추잔	1
	일본도자기	2		올리그릇	1
장재식(국회의원)	도자기	1		지울	1
	도자기	1	이재경(여성신문	스카프(대)	1
	도자기	1	사사장)	스카프(소)	2
	탈장식대들	1		도자기	1
	술잔세트	1	임태환	담복	1
이우경	그림	1	김희선	계수도도자기	1
정현택	브로치(은)	1	신재라	호랑이그림	1
	브로치	1	조영남	옷	6
	추석잔	2	김영은	사진첩	1
강원봉	커피메이커	1		컵	10

기증자	품목	수량	기증자	품목	수량
이희호	사진첩(손은)	1	김종광	커피잔세트	
	스카프(Heri)	1		도자기,조각	
	석탁보	1	물스카페트		
	화장품	1	장영우	책2종	
	목걸이	1	강대인	아카테리속박권	3
	지갑	1	안지희	여성의류	
	스무일련약	2	박광호	리서츠,사진첩,모자	
	잠옷	1	한양대태구팀	싸인볼10개	
김종희	스카프	1	장동희	싸인볼1	
	시계도자기	1	유인촌	피어칼 리서츠	10
	장신구	1	김정곤	포탈트 의류 3점	
유영님	구두	1	유복님	수공예장식품	2
	정장자	1	(평화여성회)		
서영춘	핸드백	1	전재현	그림	1
	보석함	1	이미경(국회의원)	청자꽃잔	1
	목걸이	1		도자기	1
이정자	장의세트	1		도자기	1
	매화	1	손세일	백두산예자	1
	글씨	1	신낙균(국회의원)	화장품	1
	옷	30	장상(이대총장)	다기세트	1
홍영진장모(향년교회)	은수저2벌		현소훈(사감)	꽃잔세트	1
	카우서버론 2세트			커피메이커	1
유선호의원(국민회의)	장거갑			벽걸이	1
박종훈교수(단국대)	도자기			예자	1
손덕수 교수	사발 5개			헤어드라이어	1
이경숙 총장(숙대)	세트		이화수	글씨예자	1
오숙희	도자기			부부꽃잔	1
이흥균	물사자		늘푸른회(이성미)	여그	6
김보우	남성양복			스키복세트	1
윤수경	도자기			얇치마	1
윤 열	커피세트			명수기	1
이상덕	넥타이 10개		안지희	의류	200
박장수 KAYKIM (패션디자이너)	조끼		(인지회&평피니)		
	수직나일		김태중	넥타이	20
	여성의류1벌				
김민준	CD				

## 7) 평화 만들기 바자 결산보고 (1997. 8~1997. 10)

1997. 11. 5. 현재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1. 기증품 판매수익	14,354,300	1. 일반경비	7,136,720
		문구비	286,880
		교통비	499,000
		우편발송비	327,280
		회의비	113,120
		자원봉사집대	208,800
		인쇄비	328,440
2. 입채수익	1,907,200	홍보비, 여성신문축하	634,700
		행사비	761,000
		기증자집대비	300,000
3. 커피, 옥수수죽 판매	773,960	2. 행사당일 경비	1,190,000
		음료수대	300,000
		필름	90,000
		필대비(가수)	240,000
4. 찬조금	1,500,000	비디오, 카세트	500,000
비블기회		선물포장	60,000
윤명선		3. 하얏트전기표, 봉사료	4,000,000
여성신문사(후원사)	1,000,000	4. 인건비	3,200,000
5. 광고수입	5,800,000	인건비	800,000 × 2 × 2
삼양사	2,000,000	5. 평가회비용	101,600
한양대	1,000,000	6. 공동주최수익분배	20,000,000
한남두자	2,000,000	(평화여성회동경)	
6. 대궐판매	17,878,000	소 계	35,628,320
평화여성회	6,036,000	총 지 출	15,628,320
이락회	4,230,000	잔고(분홍민163,280)	6,293,140
평화여성회, 이락회		공동체문화원여기	
당일수입	1,300,000		
공동체문화원	5,280,000		
당일입장	1,030,000		
총 계	41,921,460	총 계	41,921,460

## 바. 연구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박현선(이대 박사과정)
- 위원회 : 지순희, 강남식, 김선옥, 이상화, 조성혜, 정현택
- 위원회 소집 : 2회

### 2. 사업목표

-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과제를 둘러싼 제반 이론을 연구한다.
- 남북한 통합과 이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연구한다.

### 3. 사업내용

#### (1) 제1차 위원회 소집

- 때: 1997.6.26. - 곳: 사무실
- 참석: 지순희, 정현택, 조성혜, 이현숙
- 결의:
  - 1) 연구위는 통일 전반의 문제를 기본과제로 삼는다.
  - 2) 매월 1회 평화강좌를 실시한다. "통일은 어디까지 왔나?"
  - 3) 연구 프로젝트 정보를 발굴한다.
  - 4) 계간지 '평화를 만드는여성들' 편집위원회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 (2) 김영삼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참가

- 일시: 1997년 5월 19일 - 주최: 여성단체연합
- 발제: 정현택 부대표
- 내용: 정현택 부대표가 김영삼정부의 통일, 평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발제하였다. 본 발제는 정책기획위원장, 사무국의 시론회의와 검토를 거친. (발제문은 1997년도 글모음 참조)
- 비관점:
  - 1) 전체적인 통일논의나 통일정책이 혼선을 거듭
  - 2) 통일을 둘러싼 국민적인 논의가 결여
  - 3) 전체 통일운동이나 정책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정부 차원의 논의나 정책입안에서 여성의 대표성 취약 통일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93년이 10%, 94년이 10.9%에 불과, 96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NGO위원회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여성 포럼에서 여성들은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의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2,000년 까지 3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

- 4) 김영삼정부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국방비 문제: 1996년도 국방예산은 1995년 11조 744억보다 12.5%나 증가한 12조 4천 6백 19억 원이고 이는 전체예산의 22%를 차지. 반면 복지예산은 4.03%에 불과. 97년도도 국방예산은 13조 7,865억원. 약 1조 3천억 증가. 국방비와 여성의 복지는 늘 역비례 관계.
- 5) 여성계가 군사문화나 그 피해를 막기위해 요구하였던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이나 외국군 주둔지역의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도 거의 실현되지 않음.
- 6) 통일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 여성 NGO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 통일원에 의한 NGO지원은 4개 단체, 금액으로는 10억원이 고작.

- 바람직한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제언:

- 1) 평화체제로의 과감한 전환
- 2)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여성·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
- 3) 여성을 고려하는 통일정책의 수립
  - ① 정부는 98년부터라도 당장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 돈을 여성을 위한 복지로 전용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당장 중단된 한미행정협정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하고, 불공평한법의 개정을 통해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의 유린과 국가주권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③ 먼저 통일관련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이미 요구한 대로 30% 이상이어야 한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축협상에도 여성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 ④ 또한 통일논의에서 실종되어 버린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NGO단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절

요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⑤ 여성 간의 교류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3) 민족통일연구원 방문

- 때 : 1997년 7월 8일 2시
- 곳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 참석 : 경원택, 지순희, 이현숙
- 방문내용 : 북한인권센터 이금순 소장파
  - 1) 북한관련자료 이용에 관한 일
  - 2) 탈북여성들과의 접촉 가능성 타진
  - 3) 민족통일연구원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4) 평가

-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활동이 지연됨에 따라 거의 휴지기로 빠짐.
- 평화강좌는 바자준비가 시각됨에 따라 실무력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 연구위원회 운영은 평화여성회의 적은 실무자 수의 실무역량을 초과하므로
- 여성평화연구원에 그 기능을 이관하고 운영을 중재함이 합리적이다.

# 감사 보고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귀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1997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한 결과 착오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 <감사견>

1. 현금출납부
2. 원장
3. 수입·지출결의서
4. 통장

1998년 2월 16일

감사 이훈우 

## VII. 1998년도 사업계획안

### 가. 1998년도 중점사업

#### 1. 중점사업 : 남북군축과 화해를 열어가는 여성들

##### (1) 중점사업의 배경

21세기를 맞아 한반도는 평화복지 통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군축정착을 시급히 실천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군축은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과업이다. 군축운동 즉 무기폐기의 축소, 무기거래의 투명성의 대한 감시, 군사비 삭감, 효율적인 군대 조직의 운영, 군축을 위한 민간참여보장과 협의 조직의 활성화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군사비삭감운동은 세계평화운동 단체들이 오랜기간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성들이 연대하여 그 일을 전개해 왔다. 이제 본격적인 군사비 예산의 삭감운동을 통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사회복지의 확충과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평화여성회는 남북군축을 98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 (2) 중점사업내용

###### 1) 군사비예산삭감

- ① 국방비예산 사용에 대한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
- ② 국방비예산 삭감을 위한 청원과 압력활동을 전개
- ③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사용료 요구등)

###### 2) 무기감축문제

- ① 무기구입에 대한 투명성 요구(무기수입에 대한 문제제기)
- ② 대인지뢰반대활동- 인도주의적 관점, 국제인권 준수, 남북합의서 준수 라는 차원에서

### 3) 구조개선

효율적인 구조의 운영 - 불규칙하게 편성된 장성계급승, 예비군문제, 군복무기간의 문제등

### 4) 군축에 대한 남북한 군사공동운영위원회 가동을 촉구

### 5) 사업방식

- 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군축이 너무 정치적·전문적 사안이기 때문에)
- 국방비삭감에 대해서는 독자적, 연대적인 방식을 모두 활용한다.
- 중점사업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
- 군비삭감 가능한 분야 조사·탐색
- 군축선언 제안 - 북한여성에게

## 나. 각 위원회 사업계획

### 1. 정책기획위원회

#### (1) 위원회구성

- 위원장: 김숙임
- 위 원: 조영희, 정경란, 김일리, 여혜숙.

#### (2) 사업목표

- 여성평화운동의 수행을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개발
- 본 회의 중점사업 전행을 위한 정책 개발, 점검의 역할
-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비판적 검토와 정책제시 활동

#### (3) 사업내용

- 여성평화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연 2회 정책위상을 실시
  - \* 세계여성평화운동의 동향
  - \*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과제
- 중점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사업일정과 군축의 내용을 개발 : 평화통일사업위원회와 함께 위상, 필요시 전문가 초청

### 희상

- 남북한 정부의 통일평화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정책을 개발, 제시
  - \*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촉구
  - \* 통일, 국방, 외교 분야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 2. 평화교육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한진이
- 위원 ; 손덕수, 김현숙, 김상임, 한정자, <sup>김영희</sup> <sup>~1337</sup>  
보장(윤문자, 이인원, 강혜명, 박예경)

### (2) 사업목표

- 한반도 상황에서 요청되는 평화교육 이론체계를 확립한다.
- 행사를 통하여 지역활동을 강화한다.
- 행사를 통하여 회원활동을 강화한다.

### (3) 사업내용

#### 1) 평화기행을 통한 회원활동 강화

- \* 봄 ; 6월 5일~7일      장소 ; 독도
- \* 가을 ; 10월 24일~25일      장소 ; 철원(분단선)

#### 2) 청소년문화제를 통한 지역활동 강화

- \* 사업명 ; 문제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제 '우리들의 평창'
- \* 목적 ; 일시교육, 사회급변, 가정교육의 약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폭력, 기증, 자살 등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교나 단속이 아닌 문화적인 접근으로서 그들의 생생한 욕구와 문제를 들어주고 부모와 사회와의 의사소통의지와 능력을 신장시키며 비폭력 평화행동을 촉진시키고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 \* 일시 ; ① 5월 16일, 23일      ② 9월 12일, 19일

- \* 장소 ; ① 수유역                                 ② 화양동 또는 구로동
- \* 내용 ; 토론회, 노래제, 마당극, 풍물대우기, 상암코너 등

### 3) 평화교육심포지움 년 2회 개최

## 3. 통일사업위원회

###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윤수경
- 위원 ; 고은광순, 김영애, 문화영, 박성자, 박인옥, 매필수, 김희은, 이순례, 인제근, 강도송, 경강자, 경숙자

### (2) 사업목표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행동을 전개한다.

### (3) 사업내용

- 탈북여성들과의 대화모임 6회까지 계속 실시 ; 마친 후 자료집 발간

### 1) 탈북여성들과의 대화모임 기획안

#### - 대화 주제

#### ① 대화모임(2) - 성과 사랑 이야기

- \* 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                         \* 혼전, 혼외 정사
- \* 이혼과 재혼   \* 매대환
- \*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어린이 성폭력

#### ② 대화모임(3) - 남북한 여성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

- \* 교육제도   \* 학교교육의 내용
- \* 사회교육   \* 교육과 경제

#### ③ 대화모임(4) - 남북한 여성의 일과 여가에 관한 이야기

- \* 가시노동   \* 사회적 노동
- \* 여가와 문화생활                                 \* 일과, 여가(또는 문화생활)와 경제

#### ④ 대화모임(5) - 남북한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 \* 노인부양   \*瞎아
- \* 의료보험   \* 노후보장

- ⑤ 대화모임(6) - 탈북여성들의 남한생활 이야기
  - \* 남한 사회에 대한 인상
  - \*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희망
  - \* 남한 여성에 대한 희망사항      \* 통일에 대한 생각

- 2) 사업기간 : 대화모임(1) : 1997년 11월 초  
 대화모임 (2) : 1998년 3월 초  
 대화모임 (3) : 1998년 4월 중  
 대화모임 (4) : 1998년 5월 중  
 대화모임 (5) : 1998년 6월 중  
 대화모임 (6) : 1998년 7월 중

3) 사업주체 : 통일사업위원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4)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제 개 등
- 5) 북한동포돕기 계속 - 북한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활동, 하우글기운동
- 6) 외교통일분야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작업
- 7) 평화여성회의 98년도 주요사업인 남-북한 군비축소운동

#### 4. 대외협력위원회

##### (1) 사업목표

- 한반도의 분쟁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국내외 여성평화 연대망을 형성한다.
  - \* 국내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
  - \*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

#####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최만자)
- 위원 : 강남순, 고은혜(선교사), 김매연, 김영, 김효정(선교사), 신경혜, 김혜진, 노길림, 성명옥, 윤경희, 권희순, 신윤옥(제과나다), 강정숙(재독), 권순환(재미), 유복남(재미)



(3) 사업내용

1) 국제연대

- UN 여성지위위원회 제42차 회의에 업저버 2명 파송  
일시 ; 3월 2일-13일      장소 ; NewYork UN본부  
참가자 ; 김영, 유복남      비용 ; 자비부담

2) WILPF와의 연대

- INTERNSHIPS FOR YOUNG WOMEN IN DISARMAMENT/DEVELOPMENT AND HUMAN RIGHTS 프로그램에 2명 파송(20대의 열여섯 명 여성)  
- 비용 ; WILPF 부담  
- 일시 ; 1999년 1월 15일-12월 15일(1년간) - 장소 ; GENEVA
- WILPF 총회 참가  
- 일시 ; 1998년 7월 24일- 31일  
- 장소 ; BALTIMORE (MARYLAND주)  
- 참가자 ; 이나미      - 비용 ; 윌프 부담
- 동서독, 남북한 여성들과의 만남  
- 일시 ; 1998년 10월 또는 11월      - 장소 ; 독일

3) 국내연대

- ① 대인지피대회활동
- ② 기지촌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모색
- ③ 기타 타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모색

4) 영문 NEWS LETTER 발행 ; 연 2회

5. 제정·조직관리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윤명선
- 위원 ; 서미숙, 박형욱, 김지희, 배성자, 송영자, 정방원, 정은자, 최경원, 지은주, 김영욱, 윤경진(보장 ; 공연아, 박선희)

(2) 사업목표

- 1998년도부터 재정위원회가 재정과 조직관리위원회로 뉘에 따라 회원확보와 회원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평화여성회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한 기금확장

(3) 사업내용

- 기금확보를 위하여 이사를 10명으로 연100만원>< 10
- 후원회비확보를 위하여 후원회원확보 연100만원>< 10
- 강사인력은행 운영 - 개별단체별로 접촉하여 강연후 본회 재경회
- 소모임 운영과 맞물려 회원활동 프로그램화한다.(자비부담)
- 회원의 날 연1회
- 회원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모임 운영(여행, 간사, CR 등)

별첨 1. 1998년도 월별 사업계획안

	총괄위	교육위	정책기획위	대의협력위	재정조직위	연구원	사무국
1 월	· 무한농업개발국 · 제1차사업한국 · 위원회준비	· 워권회	· 정책회의(1)	· 워권회	· 워권회	· 연구원	· 총회준비
2 월	· 세계하부금기 · 한국위원회의준비	· 워권회	· 워권회	· 국내연대회의	· 워권회	· 재간지 <영 · 화를 만드는 · 여성들> 발행 · 제25호	· 이사회 · 운영위 · 하부금기실행 · 위
3 월	· 남북여성(2) · 세계하부금기 · 준비	· 청소년문화계 · 준비모임(1)	· 1998년도 중점 · 사업(군속)의 · 이문화작업	· UN 여성지위 · 워권회 · 업거 · 비 파송	· 강의를통용 통한 · 재정확보(수시도: · 지역별,단체별)	· 남북여성(2) · 이사회 · 연구원구성	· 사업발전추진 · 프로그래프기회 · 전국회의 · 하부금기실행 · 위
4 월	· 남북여성(3) · 평화강좌 · 군속활동 · 국제청소년사업 · 세계하부금기 · 대외	· 청소년문화계 · 준비모임(2)		· 기지훈여성단 · 제와의 연대 · 모임	· 재정확보 방안 · 대회의의	· 남북여성(3) · 재간지편집위	· 운영위 · 전국회의
5 월	· 남북여성(4) · 평화강좌 · 군속활동	· 청소년문화계 (1)(2) · 평화기행준비 · 모임	· 정부의 통일평 · 화정책평가	· 영문뉴스레터 · 준비	· 회비납부추구	· 남북여성(4) · 재간지청고 · 청탁	· 운영위 · 전국회의
6 월	· 남북여성(5) · 평화강좌 · 군속활동	· 평화기행 (독도)	· 여성친화운동 · 의 전망계시할 · 정책개발	· 대인거의대외 · 활동	· 재간지 프로그램 · 을 위한 다양한 · 모임(수차례)	· 재간지 <영 · 화를 만드는 여 · 성들> 제26호 · 발행여성(5)	· 전국회의

	총임위	교육위	정책기획위	대의협력위	재정조각위	연구원	사무국
7 월	· 발부여성(6)	· 청소년문화계 준비모임(1)	· 위원회	· 원프총회와세 미나에 참가 자 파송	·	· 발부여성(6)	· 운영위
8 월		· 청소년문화계 준비모임(2)	· 위원회		·		
9 월	· 대화모임종합 결과발표회 · 평화강좌 · 군속활동	· 청소년문화계 (3)(4) · 평화기행준비 모임	· 위원회		·	· 재간지<명화 를 만드는 여 성들>제27호	
10 월	· 평화강좌 · 군속활동	· 평화기행 (철원)	· 위원회	· 동서독·남북 한여성서미나	·	· 발부여성들과 의 대화모임 자료집발간	· 운영위 · 이사회
11 월	· 평화강좌 · 군속활동		· 정책협의회(2)	· 영문뉴스레터 발행준비	·	· 이사회	· 총준위(1)
12 월		· 서울시 여성발 견기금프로젝 트보고서		· 영문뉴스레터 발행	· 회계결산	· 재간지<명화 를 만드는 여 성들> 제28호	· 총준위(2)

\* 각 위원회 모임은 각 위원회가 대를 결정한다.

## IX. 1998년 정관개정안

###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원안**
1. 대표 1인
  2. 3인 내외의 부대표를 두고 그 중 상임 부대표 1인을 둔다.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대표, 부대표 포함)
  4. 감사 2인

- 개정안**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공동대표중 1인을 수석대표로 둔다.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4. 감사 2인

#### 제13조(임원의 임기)

**원안** ① 대표, 부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 ①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원안**

-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외 의장이 된다.
- ② 부대표는 대표를 보필하여 본회 사업의 집행을 관장하며 상임 부대표는 대표의 휴고 또는 결위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이중, 수석대표는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외 의장이 된다.

② 상제

### 제4장 총회

**원안** 대표

**개정안** 수석대표

### 제5장 이사회

#### 제21조(구성)

**원안**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대표, 부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안**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 원안** ①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개정안** ① 이사회는 수석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국)

- 원안** ①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개정안**
- 제31조(사무처)  
 ①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2조(구성 등)

- 원안** ① 사무국은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개정안** ①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의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실무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8장 보칙

**원안** 대표

**개정안** 수석대표

## X. 1997년도 정관

### 제1장 총회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 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반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회원의 가입절차는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정거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고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경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3인 내외의 부대표를 두고 그 중 상임부대표 1인을 둔다.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대표, 부대표 포함)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은 임원상조간에 연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상존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상조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취 ②번에 규정된 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①대표, 부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최대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①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대표는 대표를 보필하여 본회사업의 진행을 관장하며 상임부대표는 대표의 휴고 또는 결위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해산 및 경관 제책과 개정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만으로 유죄된 때에는 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대표, 부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①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의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⑤당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에게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협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임업기간이 1년미만인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장 재경(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본회가 대수, 기무세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관입조치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양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①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접수수입으로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 세출예산) 본회의 사업 세출예산은 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장 사무부서

제33조(사무국) 본회는 이사회 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3조(구성 장) ①사무국은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며, 사무국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 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국의 조직, 운영, 직원의 인사,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 제8장 보칙

제33조(정관제정 및 개정) ①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②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말의한다.

③상회원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대표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통일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원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자의 주소 증명 기재, 서명

## 운영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표 부대표단, 서기, 회계, 각 위원장, 사무국장,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가 회의를 주지한다.
2. 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3. 소집: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위원회)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임명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임명한다.

## 여인10주년 국제평화심포지엄 발제 2

### 앞으로의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들

김용욱(평화여성회) 부대표

#### 1. 위기와 기회를 맞이한 한반도 정세

이 원고를 쓰고있는 1997년 5월말, 우리는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풍문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라는 위험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 이 전쟁가능성은 식량난으로 비롯된 북한의 도발이라는 의도로 설명되고 있으나 깊은 요인까지 찾아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분단고착정책과 남한정부의 그동안의 일관성 없는 북방정책에 있다고 할수 있다.

전쟁위험은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이후 50여년간, 우리는 수많은 핵전쟁의 위협을 지나왔다. 이러한 전쟁위험의 요인은 한반도의 긴장만이 아니다. 미국의 '워인버거 군사작전 계획'같은 것은 중동지역과 한반도를 연결시킨 작전으로서 중동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병력부상을 위해 한반도에서도 전쟁도발을 하겠다는 미국국방부의 작전이었다.

며칠 전에도 미국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언급하면서 '원원자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분단된 남북한이 적당한 군사력으로 대처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열강들의 군사적인 정책이 존재하는한 완전히 해결될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는 2000년대 동북아 신냉전 형성이라는 추세를 바라보며 집중적인 북한 식량지원을 통한 신뢰회복과 신속한 평화지향적 민족공동체형성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다.

동북아 신냉전형성이란, 2천년에 다가 올 경제전쟁의 변수를 말한다. 그동안 미국은 경제대국인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상경해 왔으나 일본의 거품경제의 실체가 드러나자 미일유대정책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2010년경에는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한 견제로 미국은 중국봉쇄정책을 강화해 가고있는데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일의 동맹가화에 대비하고 있고 프랑스와의 연대를 추구하여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단극질서(uni-polar)에 맞서는 다극적(multi-polar)세계질서 형성을 공적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책변화가 없는한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라는 신냉전 형성의 가능성이 짙어짐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고착 이전에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지혜로운 대안이 긴급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점에서 우리 한반도는 지금 위기와 기회의 시기인 것이다.

## 2.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원칙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평화'란 전쟁의 반대개념인 소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반대개념, 즉 구조적 폭력, 감정적 폭력, 물리적 폭력등 총체적 폭력의 반대개념인 적극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있음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실천원칙을 가진다.

첫째로 우리는 '평화만들기(peace Making)의 원칙에 선다.

평화학자인 요한 갈통(J. Galtung)은 평화실현을 위한 기본전략을 분리적 접근(Dissociative Approach)과 융합적 접근(Associative Approach)으로 크게 나누는 데, 전자는 갈등하는 국가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서 평화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전략이며 후자는 국가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하여 공동이익의 증진을 통하여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 평화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융합적 접근이 지향하는 평화는 지켜지는 평화(protected peace)가 아니라 활동적 평화(working peace)이며 평화유지(peace keeping)가 아니라 평화만들기(peace Making)를 지향하는 평화이다.

평화만들기는 한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과 개인, 가정, 사회, 지역공동체, 국가간, 국제기구간, 그리고 우주적 차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폭력을 줄이고 정의를 세우며 갈등을 화해를 위한 구체적 실천행동도 이렇게 총체적 영역을 향한 평화만들기를 실천원칙으로 한다.

둘째로 민족통일과정에 대한 여성들의 원칙은 1992년 2월 19일 발표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그대로 실천하며 신뢰를 회복해 가는 '민족평화공동체 만들기'의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과정의 논의나 정책수립 등에 남녀 동등 위하여 적어도 30%의 여성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남북합의서는 북한인 인본주의적 통일정책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통일정책을 서로 수용하면서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합의서임으로 우리는 이 합의서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 민족의 미래의 통일사회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상(嚮)은 '남녀평등한 민족평화공동체'이다. 어떠한 민족통일사회도 여성들이 바라는 남녀평등의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평화가 파괴된 폭력사회이며 민족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 3. '남녀평등한 민족평화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실천방안들

여기서 나는 논찬과 토론을 위하여 몇가지 실천방안을 나열해 보겠다. 대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해 오던 것들이지만 앞으로 더욱 더 강화 확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우리는 분단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평화나 통일 위한 실천이 가능했던 기

간은 겨우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평화운동의 역사가 단기간인 우리들의 현실과 민족적인 위기에 처한 긴급성 때문에 총체적 영역에 걸친 평화연구와 평화교육, 그리고 대중화 운동과 연대운동의 강화가 우리의 실천규범이 될 것이다.

1) 북한외 식량위기를 대응으로서 민족평화공동체 만들기를 전제한다.

북한 식량난 현황에 대한 평가는 남한 정부, 관제기관 또 국제 기구 및 민간기구 및 민간기구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97년에 들어서면서 대체로 그 규모나 심각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식량문제는 장기적 요인, 즉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농업관련 토대(infra-structure)의 약화와 수저라는 두 요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장기적으로 도파야 하고 후자는 단기적으로 도파야 해결이 될 것이다.

다른나라와는 달리 빈부격차가 적은 북한의 경우 주민전체가 지속적인 식량난으로 서서히 기력이 쇠잔하여 몇 기월 안에 대량아사라는 참사가 예측되고 있다. 하나의 민족공동체라는 신뢰를 쌓을려면 북한의 다양한 식량난에 대한 부조권적인 원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장기적인 구조적 식량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실천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희생으로 삼고 있다. 북한여성의 고난에 연대하는 남한여성의 발나누기운동으로 여성들의 연대와 신뢰회복을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2) 군축과 복지사회제도 정착으로 민족평화공동체 만들기를 전제한다. 민족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적대관계를 해소할 군축이다. 이미 남북합의서 제 1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군축을 위한 이상적 실천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이를 실천으로 촉구할 것이다. 또한 방위비에산과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의의에 관하여 있다. 방위비에산이 줄어다 여성복지를 위한 예산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현재 막대한 군사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출함으로써 지소독층의 복지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난한 여성을 위한 복지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1997년도 남한의 방위비는 13조 8천억원가량이며 국가예산의 23%를 차지하고 복지비는 4,039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회나 국방부의 국방비에산을 위한 세비나에 참여하며 군축을 주장해 왔으나 일조로도 지속적으로 남북한 양정부를 향한 군축운동을 전개하여 적대감을 없애며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은 21세기의 동일을 대비한 방위수준에 적합한 병력규모를 상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안보, 민족안보를 위한 군사체제에도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주

의결지 감시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막대한 지원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경제적 부담을 축소해 갈 것이며 미군주둔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군범죄에 대한 대책활동을 강화하여 여성이 폭행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진게해 나갈 것이다.

3)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민족평화공동체를 만들기를 전개한다.

남북이 평화보장체제인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필수적인 것이 '상호불가침'의 법적 보장이다. 따라서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남북한은 50년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북한과 미국이 맺었던 '정전협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협정은 곧 준전시체제를 의미한다.

평화체제라는 말도 역시 평화학자인 요한 갈통의 개념으로서 전쟁의 억지나 중단과 같은 소극적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남한은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전협정의 한쪽 주체가 엄연히 미국일본만 아니라 현지 한반도 위기구조 조서의 중요요인들이 미국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미국은 반드시 협정 당사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결등이 평화체제 실현에 필수적이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남한 또한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이므로 남북과 미국의 3자회담으로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4강에 의한 동북아신명년의 경제정착 이전에 민족단합과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평화체제에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4) 남북한 여성들의 만남과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민족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우리는 1991년에 남북한 민간여성들의 공식적인 만남을 성공적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 서울-평양에서의 남북한 여성들의 만남은 이때를로기나 정치적 입장은 다른것이였으나 같은 민족이라는 공감으로 대화와 협력의 경험을 가진것에이다. 우리는 그 처음 연대로 일본군위안 부문제를 위한 모임을 평야에서 가진바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성들의 만남을 활성화할 것이며 남북여성들의 만남을 통하여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구체적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만남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만남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



을 위한 다양한 협력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경제분야나 교육문제가 이  
성북유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5) 남북한 국민들의 직대감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민족평화공  
공체를 만들어간다.

북한의 사회안정법은 우리가 자세히 알수 없으므로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남  
한의 국가보안법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이  
미 그동안 민족통일운동의 상시적인 주제가 되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이유를 4가지로보면 다음과 같다.

ㄱ)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합의서와 정면으로 위  
배된다는 점에서 반통일적 성격은 명백하다. 예로, 국가보안법 제 3조에서 북  
한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ㄴ) 국가보안법은 헌법 21조(모든 국민은 인문,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19조(모든 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위배된다. 특히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가  
로막음으로서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적 추세에 맞지도 않으며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자유도 제한하여 민주주의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있다.

ㄷ) 국가보안법은 가치창출의 수단으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인간  
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억압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  
인 태세를 가로막고 있어서 헌법 22조에 위배된다.

ㄹ)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의견을 국가가 통제하고 법적용  
이나 집행과정에서도 과거에 남용되어왔고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유  
린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판듯이 폐지해야 할 반통일법이다. 안보는 국  
가의 기본적인 속성이지만 국가보안법 제1조에 있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확대하는 일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적 범위,  
사회적 범위, 국가적 범위와 중복되는 것이다.

6) 평화연구와 평화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평화의식을 심어서 민족평화공  
공체를 만들어간다.

평화를 지향하는 역사의 눈으로 하는 평화연구와 광범위한 지층을 향한 평  
화교육을 더욱 더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50여년의 분단으로  
북한사회를 알고 이해할 기회가 차단되어 왔다. 다만 일방적으로 남한 정부가  
정적으로 허용한 부분이 데스크톱에서 발명된 정도이다.

그러므로 남북의식이나 갈등원리의 근원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이나 이해불모기에서 해방되어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여

성들이 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할 것이다.

7) '통일문화운동' 전개하여 민족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통일문화운동'은 반군사주의문화운동, 반복사상시정운동, 언론의 정보감시운동,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단에 대한 대안운동 등을 통틀어 개념지은 말이다.

통일문화운동은 그러므로 다원사회조성운동으로서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가치관을 창출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그동안 통일을 군사, 정치, 경제중심의 주제로만 풀어 왔던 것을 보충하여 결여되어 왔던 것을 보충하여 결여되어 왔던 사회문화적 영역까지 확산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이분법적 사고, 성취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도구론적 방식을 극복하고 적대감을 가졌던 다자를 받아드리는 언어와 의사소통, 상호이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운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통체적 전망을 민족통일운동이 가질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인 힘을 축적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서는 오랜 기간의 군사주의문화의 정착으로 사회전반에 침투되어있는 가부장적 여성혐시적 남성중심적 위계적 문화의 대안운동으로서 공동체적 다원적 민주적 가치를 뿌리내리는 운동이다.

8)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민족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우리민족의 평화와 화해는 국제적 연관 속에서 가능하다. 동북아시아 여성들의 평화운동단체나 시민단체, 기타 미국이나 유럽의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민족의 해외동포 단체들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협조하며 평화로운 세상만들기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 김영삼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평화·통일을 중심으로-

정원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대표)

### I. 분단현실과 여성의 역할

북한으로부터 들리오는 식량위기의 끔찍한 소식들은 다시 한번 왜 여성에게 평화통일이 절실한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흔히 여성은 원성적으로 평화를 더 사랑하고, 평화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가 혹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평화나 통일운동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는가 혹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평화나 통일운동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기존의 성역할을 더욱 고정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남녀상이의 거침은 이분법적 적대관계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차라리 우리 여성이 항상 전쟁과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주장에서 우리의 논의를 출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적극적인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일과 관련하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의 과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가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여성들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를 향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기에, 여기에서 정부는 중요한 해결주체로 등장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먼저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행정책임자를 향해 특단의 조치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 II. 김영삼정부의 평화·통일정책과 여성

김영삼정부는 대성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서로 뿌리나 이념이 다른 민정, 민주, 공화파 3계파가 합당한만큼, 출발부터 개혁파 보수 사이의 혼돈 내지는 상호경쟁이 존재하였다. 이는 관료들의 행정치리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인지 그 기본취약에 있어서는 보수주의를 짊고 있으면서, 종종 정치의 수면 위로 온건한 개혁정책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이런 정권의 속성은 통일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김영삼정부의 초기 통일정책은 전향적이면서도 적극적이었다. 1992년 2월 19일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도 민족이 더 우위에 있음' 강조하였고, 비전향에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도 민족이 더 우위에 있음' 강조하였고,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노인을 인도적 관점에서 조건없이 송환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은 1년도

지나서 않아서 변질하였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태도는 강경, 보수로 선회하였다. 카터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의 합의 역시 급작스런 김일성 주석의 죽음과 조문파동으로 다시 철회되고, 남북간의 불신과 감정적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후 정부의 통일정책은 한편으로는 강경노선으로 치달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관성을 결어한채 우왕좌왕 하였다.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대북투자 기업인 내사, 정수료조형 결정, 대북발전기, 인공기사건, 민간차원의 대북 발전원 불허, 성혜림사건, 4차회담과 황철영 연제, 감수함 사건과 같은 일련의 대북관련 사건의 절미과정은 그 대표적이 예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3년간의 지루한 협상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배제되었고, 마지막에 정수료시절비 부담만을 떠안았을 뿐이다. 경제교류협력에서 정부는 감수함 침투사건을 기화로 북한에 상주하던 기술진조차 귀환시키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경제적 협력가능성도 동결되고 말았다. 이런 대북정책은 우리에게 어떤 실익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대내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대북감정을 악화시킴으로써 보수적 정치세력의 안정화에 기여했을 뿐이다.

김영삼정부는 남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차회담이 성사되는 7월에 정부의 대규모 북한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소식이 돌리 나오고 있다. 이를 빌미로 대내적으로 진행되는 민간차원의 북한돕기운동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의식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시가 급한 북한의 식량사정을 감안하자면, 정부가 내비치는 이런 대규모 지원은 시기적으로 너무늦어 버려서, 우리는 그사이 죽어갈 수많은 고귀한 생명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미 어떤에서는 1996년 9월-10월 사이에 '북한수해 동포돕기 여성캠페인본부'를 결성하며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결성되어, 한국어성당제연합과 공동으로 '북한 여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다'라는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717인의 여성들은 민간단체나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식량은 필요량의 10%에도 못미치는 상황하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식량지원과 관공점을 통한 직접 수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우리 23일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경에서 있었던 남북 핵심자회담의 실제로 인해 이런 여성들의 요구는 현재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전체적인 통일논의나 통일정책이 이렇게 혼선을 거듭하면서 요래되는 가장심각한 문제는 통일을 둘러싼 국민적인 논의가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급박한 상황의

변화가 올 경우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거기다가 전체 통일운동이나 정책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논의나 정책입안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대단히 약하다. 통일관련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93년이 10%, 94년이 10.9%에 불과하다. 96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NGO위원회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여성포럼에서 여성들은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의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2000년까지 3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원칙까지 반할없는 예외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지 통일정책이나 논의에서 특별히 여성의 대표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서북에 의한 남북의 흡수통합이 여성에게 끼친 광범한 결과를 이미 짐작했기 때문이다. 통일 후 5년사이에 옛 남북여성들의 취업률은 45%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1차적인 감원대상이 되었던 사실 이외에도 옛 남북의 탁아소정원이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화함으로써 탁아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자공적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직장퇴직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의 부족이 심해지면서 서북여성들의 실업률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결국 통일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혹은 보수 강경세력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통일과정에서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여성의 지위는 더욱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까닭에, 통일정책이나 논의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불가결하다.

마찬가지로 김영삼정부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방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6년과 97년 예산을 보면 여전히 국방비는 축소되지 않고 있다. 1996년도 국방예산은 1995년 1조 744억보다 12.5%나 증가한 1조 4천 6백 19억원이고 이는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복지예산은 4.03%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고역 11위를 자랑하는 한국으로서는 어디에 내놓기에도 부끄러울 수치이다. 97년에도 국방예산은 1조 7,855억원이어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조 3천억이 증가한 것이다. 국방비와 여성의 복지는 늘 역비례 관계를 지닌다. 국방비가 낮아질수록, 여성에게 돌아갈 복지의 혜택은 높아지는 까닭이다.

그외에도 여성계가 촉구하였던 군사문화나 그 피해를 막기위해 요구하였던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이나 외국군 주둔지역의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도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한미행정협정을 둘러싼 협상은 1995년 11월에 시작되어 1996년 9월 7일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이기순씨가 미군에 의해 비참하게 목이 잘린 채 살해된지 3일째되는 날이다. 이 협상의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이 불행한 여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는 채, 협상은 끝나 버렸다. 김영삼정부의 등장 이후로 1993년 서초동 김국희씨 성폭행사건, 1994년 4월 윤현아씨

실행행사건, 1995년 11월 천금숙씨 강간치상 사건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무중에 저지른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던가 혹은 '살인범이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할 수가 없다. 던가 혹은 '살인범이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할 수가 없다, 는 한미행정협정의 불공평한 조항으로 인해, 미국법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고, 이는 그들의 잔인한 범죄미군들은 증거를 얼마든지 인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측에서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형기를 채우지 않고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들 중심으로 여성들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 용산 미군기지 1호문 앞에서 정기적인 금요시위를 계속하여 왔고, 1996년 11월 29일로100회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정부는 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어떤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이는 바로 정부가 여성평화의 실현에 얼마나 불성실하고 무기력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NGO에 대한 지원의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통일원에 의한 NGO지원은 4개 단계, 금액으로는 10억원이 고작이다. 그나마 이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이미 설립때부터 통일원과 관계가 있고, 통일원사업을 이양할 경우라는 선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로 이를 통해서도 정부의 여성역할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권위주의의 통일운동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다.

### III.바담직한 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제언

#### 1. 평화체제로의 과감한 전환

소련의 붕괴 이후 형성된 다극체제 하의 세계질서에서는 군사적 헤게모니가 가진 절대적인 지배력이 약화되고, 경제적 헤게모니가 보다 중심적인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통합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들에게도 개혁·개방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동북아에서는 미, 러, 일, 중의 4강협력체제가 정착하면서, 미국의 선도적 지도력은 유지되나 일방적인 이해관절은 자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다음적인 봉어나 생존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분명한 입장전명과 중국의 급격한 경제력 성장으로 한반도에서는 북한내부의 고관요인이 없는 한, 정치적으로 분단고착화정책을 현실로 받아 들이되,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민족적 단합과 제고된 민족의 당에 의해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세를 감안하면서 역성제는 정부에게 발상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부는 과감하게 위협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평화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에 굴복을 위한 접근이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휴전선 양면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온갖 공격적 무기와 군사시설 및 주둔군을 감축 내지는 후퇴시키고, 남북의 군비를 합의과정을 통해 축소하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한미군도 감축해야 한다. 이것만이 남북한 모두에서 전쟁으로 인한 역성의 피해를 줄이고, 역성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대외명분보다는 실익을 위하여, 위기에 몰려 데로는 더 예민하고 공격력이 되기 쉬운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 정부는 참용성을 갖고 임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해야 한다. 루지하다시피 동·서독통일의 디딤돌이 된 것은 1970년대에 취해진 빌리 브란트의 획기적인 동방정책이었다.

실제로서의 통복국가의 승인, 상호불가침조약과 더불어 서독이 행한 경제지원은 통일을 위한 신뢰구축의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다. 1970년대의 냉전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비난을 물리치고 강행된 브란트의 과감한 조치가 바로 이시점 우리 정부나 정치지도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북한 역시도 국방비를 5% 절감한다면, 100만톤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2.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여성·아동을 위한 의도지원

정부의 평화체제 모색과 함께 가장 시급히 필요한 조치는 식량지원이다. 남북한이 상호공존과 자주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지구나 굶주리는 같은 겨레에 대한 즉각적인 식량지원이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당국이 대국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면 양보를 하면서라도 대규모 식량지원을 감행한다면, 이는 남북간의 화해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의 양보가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결코 손해를 의미하지는 않음은 이미 서독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기형아를 낳는 산모들 그리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의학품 수송과 같은 대대적인 의도지원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 3. 여성을 고려하는 통일경제의 수립

이미 앞에서 밝힌대로 통일과 관련된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역성제는 우선 전체 통일논쟁 '여성적 시각'을 일기할 종합적 조망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적 입장이 고려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 요구들을 제시한다.

- 1) 정부는 98년부터라도 당장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 돈을 여성을 위한 목적으로

전용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당장 중단된 한미행정협정을 물리적인 협상을 재개하고, 불공평한협정의 재검토를 통해 미국에 의한 여성인권의 유린과 국가주권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먼저 통일관련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이미 요구한 대로 30%이상이어야 한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축협상에도 여성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4) 또한 통일논의에서 실종되어 버린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NGO단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이 보다 개선된 삶을 가능케 하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지원되어야 한다.

· 분단의식을 극복하고 평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평화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 그리고 교사육이 필요하다.

5) 마지막으로 40여년이 분리되어 살아온 여성들, 그래서 서로 이질적인 가치관, 생활태도, 그리고 여성의식을 지닌 여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조실스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여성 간의 대화나 만남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는 남한측 못지 않게 북한측의 의도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 간의 교류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옛 동독과 옛 서독레미니스트사이에 맺어지는 물이해와 불화는 전직 여성정책의 개선을 위한 추진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바로 이런 전철이 우리에게서도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15대 대통령선거 이행해야 할

### 여성평화정책 20대 과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기획위원회 작성

#### 1. 여성평화정책 20대 과제의 선정배경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여성공약과 통일, 군사안보부분의 공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유권자가 올바른 여성평화정책의 기준을 갖고 자기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여성평화정책 20대 과제의 기본방향

여성평화정책의 기본방향은 평화로운 민족공동체건설과 정의로운 세계질서의 확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안보,군사분야의 정책내용이, 그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모두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실현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한다. 통일시대 지향적인 군사체제의 정비, 시련의 인권과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안보, 평화가치관의 확산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15대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평화철학과 이에 입각한 통일북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음으로써 평화체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3. 여성평화정책 20대 과제

- (1)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보장을 평화통일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제반 조지를 취해야 한다.
- (3) 국가보안법을 개정(으로 정리된 것으로 임)폐지하여야 한다.
- (4) 통일외곽의 민간참여 보장으로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 (5)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 (6) 이산가족의 소식교환 및 상봉 등 인도적 교류를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7) 종속적 한미군사관계를 조해평등한 군사관계로 전환하여 국방의 자주화를 실현한다.
- (8)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현재의 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 (9)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상호안축을 위한 군축협상을 시작한다.
- (10)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고 군정보기관의 민간사찰을 폐지한다.
- (11) 국방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민간인의 국방관련 정보 접근을 쉽게하여 민간 일체감 조성한다.
- (12) 징전유지자살 제종 등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전투력증강사업을 개선한다.
- (13)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 (14) 북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
- (15) 탈북비 식감과 여성복지 확대
- (16) 통일관련 분야의 정책수립과 결정결행과정에 여성 참여 30% 이상 확보

- (17) 평화교육을 위한 여성지도력 양성과 지원
- (18)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보장과 지원
- (19)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방지
- (20)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외교정책 실시

#### 4. 여성평화경제 20대 과제 선정의 근거

##### 1. 평화·통일분야

- (1)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보장하는 평화통일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1세기는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한 민족공존의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북미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시장경제도 북한을 경제와 협력이 가능한 상대자로 인식하여 더 이상 적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확고한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몰려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차단·유예시키는 등 남북분류를 통한 북한체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남한의 평화통일 뿐 아니라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도 필연적으로 민족상잔이라는 민족적 비극과 북한의 내부식민지화라는 민족분열을 야기시킬 것이다.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피하면서 민족화합과 민족의 공영을 가져오는 평화적인 통일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분단상황 하에서의 남북한 당국이 상대를 통일의 반역자로 인정할 대신에 진정한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 당국이 남북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은 분단 이후 계속되어 온 온 거리의 통일열망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화적 통일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합의서가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거쳐 1년 소강한 성과라는 평가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체결하는 조약들이 과거의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보다도 중요한 조약이라는 평가를 고려할 때,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준은 통일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합의서의 국제기준을 이루어 내어 이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국가보안법을 개정(으로 정리된 것으로 압)폐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그 개폐가 불가피하다는 국내외의 도전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부패가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완정적으로 적용되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1995년 부산 형사지방법원에 의해 위헌계정을 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1996년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자유를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국제연세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 역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국제적인 압력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상호 신뢰와 인접 속에서 통일로 나아가자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상대적인 북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인체의 중선교류를 금지하여 남북교류협력필요도 폐지되는 등 남

북교류 증진에 중요한 걸림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정신으로 국가보안법은 개정(또는 개폐, 폐지)되어야 한다.

(4) 통일은의예의 민간참여로 보장으로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통일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과제이다. 통일독일의 경험은 일거에 정치, 경제제도를 일체시켰지만 모두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마음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영토적, 정치적 통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차이를 최소화하는 통일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그 논의단계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일 논의는 민족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화합의 차원에서 국면적 합의의 틀 밖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운동은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활성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시민의식의 성장에도 주요한 기여를 하였다. 국가의 이익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정부와 민간 양자의 단결, 협력, 비판적 견제는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요구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통일운동의 다양한 통로를 보장하고 정부 내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통일운동의 활성화와 민간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5)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통일은 단순한 영토 통합 이상의 문제이며, 50여년이라는 오랜 분단으로 인해 야기된 이질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북 경제회담개최를 계기로 시작될 남북 경제교류, 협력은 남북 상호의 체제를 이해하고 보완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경제교류협력은 남북경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미비 등으로 물자교역에서 남한의 한일 박장이 지나치게 높고, 교역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며, 대기업 중심의 간접교역의 형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신뢰관계 형성을 경제외 정치, 군사적 문제에 종속되지 않는 일관된 경제교류협력심을 추진하고,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며, 민간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계속되는 북한 경제난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추진하여 야 한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활성화되어 곡식할 소득력자를 확보하고 남북 두 지역의 상호의존성과 보편성 강화를 통한 동적 토대의 구성은 통일이후 바람직한 경제통합과정을 위한 일차적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산가족의 소식교환 및 상봉 등 인도적 교류를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분단 이후 50여년간 이별의 비극을 안고 사는 이산가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남북한간의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통일전의 1995년 통일특시에 의하면 1989년 6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이산가족의 복원주된 집속 신청건수 2,477건 중 822건만이 성사되어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달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고령이 되어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교류를 위한 복단의 조치를 조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들의 상봉을 위하여 제제의 생사확인 작업과 서신 및 통신 상태 등의 교류를 보장하고, 휴전선 비무장지대나 관문경 또는 제3국을 상봉을 위한 상설면회소로 선정, 운영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들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단계적인 상호발문도 추진하여야 한다.

## 2. 군사, 안보 분야

(7) 종속적 한미군사관계를 포괄평등한 군사관계로 전환하여 국방의 자주화를 실현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따라 미군은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어떠한 곳에서도 배치할 수 있으며 미군이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3억달러 가량이 저축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지원비와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한 규모와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UN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어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하고 있어 대통령의 군수권 행사는 군정권을 제외한 군정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무기한 주둔을 보장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한 요소를 개정하고 전작권통제권을 환수하며,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고 그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한미추진군지위협정(SOFA)중에서 시설사용, 행사지원권, 노무, 민사청구권 등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고,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하여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공용지를 반환받아야 한다.

(8)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남북한 군사적 대결은 정전체제에서 비롯된다. 정전체제는 종전시상태이므로,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남북간 교섭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일 수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은 남북대결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의 선결조건이다. 남북한과 대륙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 평화협정을 토대로 평화체제를 정착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합구적 평화체제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

(9)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상호군축을 위한 군축협상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병력규모는 인구대비 1%에 접근하는데 남북한의 군사력 규모는 과대하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남북한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군사적 신뢰와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할 것을 합의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남북 상호 적정수준으로 군사력을 감축한다.

(10)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고 군정보기관의 민간사찰을 폐지한다.

한국사피에서 몇차례에 걸친 군에 의한 친정출판, 군사적압박, 군내 정치과발 형성 등의 정형으로 군의 위상은 낮다. 또한 아직까지 학생운동 등 군정보기관의 사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군은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사정보기구와 군사예산 등 군이 정권유지에 동원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1) 국방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민간인의 국방관련 정보 접근을 쉽게하여 민간 일체감 조성한다.

국방관련 정보는 1,23급으로 분류되어 민간인이 접근하기 곤란하다. 민간인은 한반도의 과민적인 안보환경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군사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12) 정권유지자금 제공 등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전투력증강사업을 개선한다.

97년까지 120대의 F-16전투기를 구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60억달러가 지출되고 차세대 구축합친조치목에는 56억 내지 63억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다. 한국은 93년에만 무기수입에 모두 8억7천5백만달러를 써 세계7위의 무기수입국이 되었다. 윤곽미리, KF-16기의 잦은 사고 등 전투력증강사업은 정권유착의 문제, 미국의 무기구입 압력과 연결되어 사회적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투력 증강사업의 효율성, 지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투력 증강사업에 민간인이 감시할 수 있도록 군민 사이에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13)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공적용 전투부대가 대담으로 배치되어 있고 지뢰대설로 인한 및 민간인의 피해가 크다. 과도한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으로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평화촌으로 조성하고 세계적인 관광상태로 보존기수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방에 배치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이동하고, 대량살상용 무기의 제거가 필요하다. 또한 100만개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대인지뢰 제거를 위해 지뢰대설의 실태를 파악하며, 남북 지뢰제거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 3. 여성 분야

(14) 북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

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자립한 식량지원과 함께 굶주림과 질병으로 기형아를 낳는 산모와 죽어가는 어린이를 위해 대대적인 의료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태달 1만명의 어린이가 굶어죽어 지금까지 약 50만명이 기아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80만명의 어린이들은 장기간의 영양실조로 심각한 발육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프랑크푸르트 알제마이네』와 『디 벨트』등 독일 언론은 독일적십자사(DRK) 등을 발표를 인용하고 있다. 한겨레신문(9월19일자)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극악적인 보살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 이후 국민회합과 사회통합, 국민건강의 심각한 저하로 우리 민족은 훨씬 더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 봉착할 것 이다.

(15) 탈북자 식감과 여성복지 확대

자주국방과 군인들의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방위비 수준은 전체 예산지출규모에 있어서 열경에 여긔나고 지너지다. 1997년 전체예산은 67조 5천7백8십6

역원이고 그 중 방위비는 14조 3천5백억원으로 경제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회복지예산은 경제예산의 6.2%이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8% 증가한 75조 5천6백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중 방위비는 6.2% 증가하여 15조 2천4백억원이 되었다. 21세기 남자가 평등한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남북한은 자수국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비에선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비와 여성복지비를 대폭 확대하여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무기 및 군사력 증강의 군사안보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사회발전을 위한 인간안보를 지향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시대를 만들고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16) 통일관련 분야의 정책수립과 결정결행과정에 여성 참여 30%이상 확보

통일은 국정지표의 하나이며, 국제적인 여성지세인 평화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로서 통일 분야 여성정책을 통일추진과정 및 통일이후 상황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통일원등 관련부처와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정책을 1997년 6월 정무장관(제2)실은 표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통일과 여성관련사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당히 빈약하다. 현재 통일,군사,안보분야에서 대통령 산하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여성의 비율이 14%이고 국방부의 군비통제실, 통일원 관련부서 등 평화통일관련위원회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평화, 안보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2,000년까지 30%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평화교육을 위한 여성지도력 양성과 지원

전쟁과 대립, 갈등과 분열이 아닌 관용과 화해의 평화적 가치관이 사회에 보편화되도록 확산시켜나가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통일 전후 과정의 필수적 함목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언제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대비 전문요원 양성, 통일 대비 교육지원법(남북화해와 통일대비를 위한 교육지원법)을 제정했다. 또 최근 민간단체가 통일평화교육을 주도하고 통일원이 이를 지원하는 정책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통일 평화교육 실시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도록 보장함과 아울러 반드시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교와 언론에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다루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 그리고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단체들이 평화 가치관 형성과 평화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 평화운동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8)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보장과 지원

50년 이상의 분단으로 인해 서로 이질적인 가치관과 여성지식을 지닌 여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알고 화해와 협력을 해나가는 중간사정과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여성간의 대화나 다양한 만남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양한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남북 서로의 여성 상황과 여성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 이후 여성정책을 마련해나가는 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여성교류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19)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방지

주한미군에 의한 성범죄는 약소국 여성의 문제일뿐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이다. 1992년

10월부터 1995년 8월까지 총 850건의 미군범죄중 단 10건인 1.17%에 대해서만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때문이다. 정부는 중단된 한미행정협정의 재정을 위한 협상을 속히 재개하고 불공정한 법의 개정을 통해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의 유린을 방지하고 국가주권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20)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외교정책 실시

지난 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은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전쟁범죄이며, 그 책임자는 국을 및 처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96년 4월 제 52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UN인권위 여성특별문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도 일본군'위안부'제도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로서 일본정부는 법적 배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범죄와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면기금'을 조성하여 민간모금차원에서 이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범죄인정과 법적 배상을 실시하도록 한국정부는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 북한 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입건장 너머, 그냥 전이거면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북한땅에서는 우리의 북한동포들이 기아와 고통을 견디면서 식량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찬없는 식사는 이미 오래된 예기이고, 먹을 것이 없어 뿌리나 풀을 뜯거나 나무껍질을 벗겨서 연 덩어리 있는 등 식량을 구하기 눈과 들건을 돌아다니거나 열과를 타려고 목적이며, 쌀을 구하기 위해 물레 국경을 넘나드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결핵이나 유행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한겨레 97.3.19),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어린이 4-6세의 영양섭취량이 국제권고치의 38-50%에 불과하여 어린이의 키와 몸무게 비율이 정상치보다 20% 낮다고 보고합니다. 마르 잃을진 북한외 식량안보를 돌아본 세계식량계획의 피리니 사무국장은 "백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노란색을 띤 어린이들이 눈에 띈다"고 말하며 먹을 것이 없어 밭길과 옥수수밭, 나무껍질을 가루로 빻아먹어 장출혈까지 일으킨 어린이를 보았다고 합니다.(중앙 97.3.25)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핵무산의 나무가 열매에 팔려 민둥산이 되고 곡보급 문화재들이 불뎠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진의 보도는 북한의 식량난의 피해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문화적 재산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적들처럼 국제를 흔들었던 북한의 피안 피해기를 반일분계를 보아도 북한의 절박한 식량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부족한 식량분의 평가는 200-300만톤으로 조사되어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2천3백만명의 북한주민들 중 40%이 해당하는 약 1천만명이 아식적선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하루 평균 100g(공기밥 반그릇)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는데, 이는 1980년 세디오퍼야의 기준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7-8월에는 식량이 바닥이 나서 굶고고미를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없이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지역에서 이렇듯 배고픔이 고통스러워하는 북한여성들의 실상을 우리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들의 고난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나누기에는 분단의 벽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서구여성들이 북한의 입산모와 수유모,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는 등 도울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도 결국 돌보인 우리는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대한 현실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따라볼 수 없습니다. 굶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일단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매일 밥상을 차리는 우리 여성들은 식구들 먹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어머니들은 가장 먹지 못하는 분들이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나서야겠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영양실취가 필요한 임신모, 수유모, 어린이의 건강이 더 큰 걱정입니다. 건강한 산모, 건강한 어린이는 나라의 근간입니다. 이들의 생존과 건강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나서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주고 주린 배를 풀어주면서 온단의 벽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여성들은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려운 생계를 꾸리며 어린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탱해 가는 강인함을 발휘해 왔습니다. 오늘 '평화를 만드는 여성대회' 창립대회를 끝낸 우리는 북한 여성들도 이런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넘길 때라야 같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북한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여성 한 사람이 북한어린이 한 명 돕기, 여성 한 사람이 임신모(수유모) 한 명 돕기, 또는 여성 한 사람이 한 가정(4인) 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작은 운동속에 우리는 생명의 생명을 살리고 남쪽한 여성들의 가슴을 넓혀서 남북한 화해의 길을 내는 우리의 염원도 가득 담아야 할 것입니다.

1997년 3월 28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XII. 신문관련기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 관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소개 관련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관련

북한동포돕기(‘밥나누기 사랑나누기’) 관련

평화만들기 바자회 관련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오늘 창립

## 첫사업 북한돕기운동 벌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회장 박영숙)가 3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간 다지기를 목표로 설립한 최초의 여성 단체인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한 여성과 일본 여성들이 모인 첫 시대의 평화와 여성회 창립 동원회 반국립 창립대회를 한 이래 기독교연합회 관에서

중앙일보 9.3.2



창립대회를 참전한 박영숙·박영숙·李賢淑·尹愛女·鄭惠善·李惠貞·李美善·金九吉·李順규씨(왼쪽부터), (중앙일보 기자)

를 2만여명이서 개인차적으로 창립 참가하여 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창립과 동시에 북한 여성들과 교류를 하게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창립총회를 시작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총회, "지구 여성들이 북한과 일본으로의 수유로, 어떤이들이여겨 될 것을 본다는 등 모임을 추진을 받고 있는지도 창립총회인 주라는 운동이 북방인 보고 있는 현모"를 소개한 바 있다.

창립총회 "지구 여성들이여겨 될 것을 본다는 등 모임을 추진을 받고 있는지도 창립총회인 주라는 운동이 북방인 보고 있는 현모"를 소개한 바 있다.



창립총회 창립을 하기 위해 창립총회 사무소 앞에서 있는 북한 황태후도 주진들의 모습

창립총회 창립을 하기 위해 창립총회 사무소 앞에서 있는 북한 황태후도 주진들의 모습

창립총회 창립을 하기 위해 창립총회 사무소 앞에서 있는 북한 황태후도 주진들의 모습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대회를 축하하는 박영숙·박영숙·李賢淑·尹愛女·鄭惠善·李惠貞·李美善·金九吉·李順규씨(왼쪽부터), (중앙일보 기자)

# 여성계 '北동포 살리기'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9일 창립

여성계가 국산인 독립단체로써는 북한동포를 도와서 북방인 보고 있는 현모"를 소개한 바 있다.

대통령과도 만나고, 통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도, 그리고 창립총회 창립을 하기 위해 창립총회 사무소 앞에서 있는 북한 황태후도 주진들의 모습

###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간 다지기를 목표로 설립된 여성 단체인 조직이

창립총회 창립을 하기 위해 창립총회 사무소 앞에서 있는 북한 황태후도 주진들의 모습

가장 어려운 때 창립자는 여성들입니다. 여성 창립자를 지원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친구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창립총회 창립을 하기 위해 창립총회 사무소 앞에서 있는 북한 황태후도 주진들의 모습

# 평화를 만드는 여성 소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북녘 동포를 위하여



이우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 북한어린이·여성위한 모금운동 전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명희 사무국장

#### ‘평화·통일세력의 결연차’



『평양성으로 구해낸 어린이들, 흠을 먹고 싶어하는 어린이들, 흠을 먹고 나뭇잎들을 뜯으며 전멸하는 여성들, 공중주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 공중주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 공중주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 공중주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결연차 사무국장은 북한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여성들을 그들에서도 어린이와 여성들이 적어도 고령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나 개인들이 북한을 도모하는 부조리한 지름을 해방과 북한의 고령과 여성을 심정적으로 나눌것으로서 그동안 인공적인 물질로만 남북통일의 열매를 맺은 차이를 보여 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통일여성회의를 사무국에서 '평화'가 시작하는 것과 관련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 김명희 사무국장은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어 초조하다고 말했다.

## “연령·계층 초월해 평화의 새싹 키우기에 힘 모읍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공동체 문화원 공동주최. 10월 6일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서 열려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평화'를 키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평화'를 키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평화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어느 특정한 행사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평화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이런 자지족의 가장 큰 의미는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만드는 평화의 모임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평화만들기 대자회는 여자, 열매인, 평화가 연의, 평화의 새싹으로 나오어 진행 된다.

이런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모든 남녀 노소가 '평화'의 의미를 부여한 것에 있어 오, 대표적으로 여자들중을 살펴보면 대개

평화의 평안도 밝혀진다. 평화연계인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북새로 나무심기' 보너는 북한의 식량문제에 큰 관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성'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마련한 케리하우스와 옥수수작 모내기 수확장 전막이 기부했다. 한편 주된한 김명희 사무국장은 '평화'를 키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3에 대한 김명희는 '평화'를 키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여성단체들 KNCC에 북한동포돕기 성금 전달**

여성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북한의 여성들과 다  
이름을 써서 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이

지난 7월 24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통해 북한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남녘 여성단체  
북녘 여성단체  
평화... 여성회 '여연' 열**



남한 여성단체가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 지난 7월 24일 평화의 희망들이 앞을 삼고 일어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측면 2페이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통하여 남한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남한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남한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남한 여성단체가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 식량지원 즈가 나서라

여성계 717명 성명발표

**북한이도적 결단을**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북한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남한 여성단체가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남한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남한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남한 여성단체가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남한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남한 여성들이 북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북한동포돕기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여연·여성회, 밥나누기

국립현대미술관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총연)은 지난 12월 26일 저녁 7시 30분경 명동 현대 미술관 대강당에서 '여성회'와 '여연'이 주관하는 '여연·여성회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회가 지난 12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대강당에 '여연'을 창설할 때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여성회'와 '여연'의 현황을 소개했다. '여연'은 '여연·여성회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우경 여연회장은 '여연·여성회 사랑나누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연'은 '여성회'와 함께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우경여연회장



이우경여연회장



이우경여연회장

북녘에

이우경 분회를 만드는 여성회

분회를 만드는 여성회의 이유를 대외 기관 직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북한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남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 안 되겠나'라는 말을 듣고서 '여연'을 창설하고 있다.



이우경 여연회장은 '여연·여성회 사랑나누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연'은 '여성회'와 함께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우경 여연회장은 '여연·여성회 사랑나누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연'은 '여성회'와 함께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아속 북한동포와 고통을 함께 합시다

'남한에서도 북한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남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 안 되겠나'라는 말을 듣고서 '여연'을 창설하고 있다.





# “산모·아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평화를 만드는—’ 등 여성단체 분류26회 지정기탁

여성단체가 북한여성회들 돕기 위해 20여 개를 지정기탁했다. 평화로 만드는 여성회(대표 어우성), 한여대장단연합회(대표 지은희),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등 3개 단체는 27일 오전 인천항 제

2부에서 김진호 권으로 할지불규 251억5천만원 여자를 신청해 북한 남 조피로도 보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이 분유가 북한에 인구 여성동맹과 ‘여아의 평화와 여성과 여할 보민회’ 북핵실험위원회 통해

2009년-보통화와 아간이론과 조산된 의 신모양에게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달부터 ‘1북한여성회돕기’ 사업(‘한기줍어 북한’)을 위해 7월 4일까지 880억9200원을 모았다. 두 단체는 이 수금을 북한에 여성단체들에게 지정기탁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월23일 KNCC 여성위원회에 이윤 강담과 이연희 지정기탁이 이루어지게 됐다. 지정기탁 물 1천 여상(1억)이 가능했다.



## 여성들 보

## 거리서 사무실서 '한기줍어 북한' 민족회의 '국민운동' 선로 모금나사...여인-민주금용소-원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고통 동참 ‘한기줍어 북한’ 주회: 아세아의 평화와

민족회의 '국민운동' 선로 모금나사...여인-민주금용소-원도

1천 원

### ‘평화의 쌀’ 보내기 기독교여성

## 북한동포돕기운동 기독교여성들

교주리는 북한동포를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음과 기독교정신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려는 운동에 기독교여성들이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일 ‘평화의 쌀’ 보내기 기독교여성운동부는 민족위원 장교,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통해 가는 살림치킨 연비로서 동포들과 통일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북한동포돕기’는 여러 이유로는 후원할 수 없다는 개인사를 같이하고 현재는 북한동포들이 환영을 받아 남은 어려운 처지의 한우로 ‘평화의 쌀’ 보내기를 사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여성운동부는 현대 북동포돕기 의회 및 기

금운동이 최근 들어 눈에 보지 지조중 있다. 그러나 우려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일찍이 한기줍어 북한을 모아 교회차들을 돕고 불우한 이웃을 구제했던 전통을 오늘에 살려내자는 데 착안했다”며 “무엇보다도 ‘쌀’은 우리 민족간의 대명사로 상징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쌀을 모으고 보내는 일은 북한동포들의 비고통에 동참하는 가장 확실한 행위가 된다는 데 이 운동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총무 김명숙은 “우리는 ‘KNCC 총무직을 재조직하고, 북한여성회’”

“...”

“...”

“...”

이동원 기자  
2009년 7월 27일  
주요뉴스  
1면 10행  
1면 10행  
1면 10행  
1면 10행



# 평화 이룰 수 있어

윤우호 작사·곡



내 가 가진 것은 사랑하나      함 세 할 수 있다      먼 우린  
내 가 가진 것은 사랑하나      함 세 나누어봐      요 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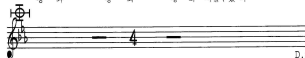
영 원 히 변 하 지 않을      평 화 이룰 수 있 어  
사 랑 도 너 의 행 복도      평 화 이룰 수 있 어



평 화      평 - 화      평 화 이룰 수 있 어 -



평 화      평 화      평 화 이룰 수 있 어



D.S



평 화 이룰 수 있 어

\* 이 노래는 평화 여성회를 위하여 작사·작곡된 노래입니다.

## 우리는 평화의 새

♩ = 76  
SLOWLY (정대 빠르지 않음)

시: 사순석  
곡: 조범옥



\* 이 노래는 평화유형성을 위하여 작사·작곡된 노래입니다.

# 206 남누리 복수리 하나되는 그날까지

곳거리

백 창수 작곡

Am Em Am Dm G C E<sup>F</sup>

어 수 수 가 의 불 건 가 -  
그 수 수 가 의 불 건 가 -

Am F Am G Em Am

남 누리 곡 - 구 리 -  
남 누리 곡 - 구 리 -

P G<sup>7</sup> Am F Dm G G<sup>7</sup>

우 리 문 일 세 -  
우 리 문 일 세 -

F Am G Em Am

이 땅 을 믿 고 삼 우 리 문 일 세 -  
이 땅 을 믿 고 삼 우 리 문 일 세 -

Am Em Am Dm G C E<sup>F</sup>

삼 곡 가 세 함 곡 가 세  
삼 곡 가 세 함 곡 가 세

Am F Am G Em Am

남 누리 곡 - 구 리 -  
남 누리 곡 - 구 리 -

# 내나라 내거레

213

문철길 작곡

C

모 리 등 태 에 - 리 드 는 태 양 수 구 의 버 리 울 데 어 글 거 리 나 의 별

P C G C G

원 구 영 의 조 종 수 세 고 려 한 순 경 함 문 은 수 의 죄 에 - - 모 라

C

등 태 에 - 리 드 는 태 양 수 구 의 앞 길 에 서 만 리 의 리 나 간 립

P G C G C G

원 경 조 종 의 조 수 세 고 려 히 거 다 리 은 우 리 만 나 님 에 응 소

G C C<sup>7</sup>

리 별 들 거 리 역 방 의 별 사 계 만 나 - 이 별 에

P Dm D<sup>7</sup> G G<sup>7</sup>

순 경 의 리 개 워 된 거 세 어 - - 모 라

C G C

등 태 에 리 드 는 태 양 수 구 가 간 의 함 이 울 리 울 리 나



## 우린 한 가족

\* - 16

피아노

Musical score for '우린 한 가족' (We are a family). The score is written for piano and includes the following lyrics and chords:

C Am F C  
 위 편 힘과 열이 품로 못보네  
 F G7 C Am F G7  
 모든 거를 내 기쁨 모은 품내 것들 세  
 C Am P C  
 우린 서로 잘크 서로 의지해  
 P G7 Am G C F Fm8 [B.C] D.C Fm8  
 니와 나는 가족 모한 친구의 온마  
 C G7 F  
 끝 - 막모아 품어 면지 - 는 노래 소리 크  
 G7 CHdim Am Dim G7 B.C.  
 락 - 인 노래 소리 내 마음 품어 내

## 작은 세상

Musical score for '작은 세상' (Small World). The score is written for piano and includes the following lyrics and chords:

G D7 Am D7 G G  
 1. 함께 양 눈을 뜨고  
 2. 작은 세상  
 3. 작은 세상  
 4. 작은 세상  
 5. 작은 세상  
 6. 작은 세상  
 7. 작은 세상  
 8. 작은 세상  
 9. 작은 세상  
 10. 작은 세상  
 11. 작은 세상  
 12. 작은 세상  
 13. 작은 세상  
 14. 작은 세상  
 15. 작은 세상  
 16. 작은 세상  
 17. 작은 세상  
 18. 작은 세상  
 19. 작은 세상  
 20. 작은 세상  
 21. 작은 세상  
 22. 작은 세상  
 23. 작은 세상  
 24. 작은 세상  
 25. 작은 세상  
 26. 작은 세상  
 27. 작은 세상  
 28. 작은 세상  
 29. 작은 세상  
 30. 작은 세상  
 31. 작은 세상  
 32. 작은 세상  
 33. 작은 세상  
 34. 작은 세상  
 35. 작은 세상  
 36. 작은 세상  
 37. 작은 세상  
 38. 작은 세상  
 39. 작은 세상  
 40. 작은 세상  
 41. 작은 세상  
 42. 작은 세상  
 43. 작은 세상  
 44. 작은 세상  
 45. 작은 세상  
 46. 작은 세상  
 47. 작은 세상  
 48. 작은 세상  
 49. 작은 세상  
 50. 작은 세상  
 51. 작은 세상  
 52. 작은 세상  
 53. 작은 세상  
 54. 작은 세상  
 55. 작은 세상  
 56. 작은 세상  
 57. 작은 세상  
 58. 작은 세상  
 59. 작은 세상  
 60. 작은 세상  
 61. 작은 세상  
 62. 작은 세상  
 63. 작은 세상  
 64. 작은 세상  
 65. 작은 세상  
 66. 작은 세상  
 67. 작은 세상  
 68. 작은 세상  
 69. 작은 세상  
 70. 작은 세상  
 71. 작은 세상  
 72. 작은 세상  
 73. 작은 세상  
 74. 작은 세상  
 75. 작은 세상  
 76. 작은 세상  
 77. 작은 세상  
 78. 작은 세상  
 79. 작은 세상  
 80. 작은 세상  
 81. 작은 세상  
 82. 작은 세상  
 83. 작은 세상  
 84. 작은 세상  
 85. 작은 세상  
 86. 작은 세상  
 87. 작은 세상  
 88. 작은 세상  
 89. 작은 세상  
 90. 작은 세상  
 91. 작은 세상  
 92. 작은 세상  
 93. 작은 세상  
 94. 작은 세상  
 95. 작은 세상  
 96. 작은 세상  
 97. 작은 세상  
 98. 작은 세상  
 99. 작은 세상  
 100. 작은 세상